

석 사 학 위 논 문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한·태 호칭어 비교 분석과 말하기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파와나 펫프라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후수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한·태 호칭어 비교 분석과 말하기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f Address Terms in Korean for Thais
-A Comparison Address Terms in Thai and Address Terms
in Korean and Teaching Integration in Conversational
Contexts-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파와나 펫프라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후수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한·태 호칭어 비교 분석과 말하기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f Address Terms in Korean for Thais
-A Comparison Address Terms in Thai and Address Terms
in Korean and Teaching Integration in Conversational
Context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파와나 펫프라이

파와나 펫프라이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한·태 호칭어 비교 분석과 말하기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파와나 펫프라이

한국어 호칭어를 사용할 때 상대와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형태가 다르므로 한국어 학습에서 적절한 호칭어 사용의 학습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호칭어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고 대화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한 복잡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태국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태국은 사회 문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호칭어 교육의 기초적 논의로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 특징을 살피고, 그 특징을 비교 · 대조한 내용을 태국인 학습자의 호칭어 말하기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칭어는 문화적 배경이나 지역, 개인의 차이에 의해 복잡하다.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징, 양국의 호칭어의 의미, 용법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한국어와 태국어의 호칭어 유형별로 나타나는 언어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국인과 태국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친족 호칭어를 범용화하여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름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나 기타 호칭어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칭어 교육은 말하기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을 구성하기 전에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호칭어를 사용 실태와 호칭어를 사용능력을 살펴보았다. 태국의 4개 대학(송클라대학교, 치앙마이 랏차팻대학교, 시나카린위롯대학교, 나레수안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출판 한국어 교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호칭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호칭어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재에 제시되지 않으면 태국에서 학습하는 경우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호칭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호칭어 교육은 말하기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울대 교재를 예로 들자면 말하기 연습이나 말하기 활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4개 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호칭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의 호칭어 사용 오류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은 한국어 호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태국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한국어 호칭어의 사용을 추측한 경우도 발견하였다. 이것은 특히 초급 학습자에서 많이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것도 교수 항목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호칭어의 등급별 교육 항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어 호칭어 등급별 교육 항목 선정 기준은 기존 교재 분석 결과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급별 교육 내용에 따라 정리하였다. 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칭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호칭어는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

문에 말하기로 교육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등급별 한국어 호칭어 목록 가운데 급별로 한 두 개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말하기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당장에 태국에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구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태국의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한국어 호칭어, 태국어 호칭어, 한국어 호칭어 교육, 한국어 교재, 말하기 교육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2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3
제 2 장 호칭어의 개념 및 유형	8
제 1 절 호칭어의 개념	8
제 2 절 호칭어의 유형	10
제 3 장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징	14
제 1 절 한국어 호칭어	14
1. 이름 호칭어	14
2. 친족 호칭어	19
3. 직함 호칭어	28
4. 대명사 호칭어	30
5. 기타 호칭어	36
제 2 절 태국어 호칭어	36
1. 이름 호칭어	37
2. 친족 호칭어	41
3. 직함 호칭어	48
4. 대명사 호칭어	50
5. 기타 호칭어	52
제 3 절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비교	53

1. 한·태 이름 호칭어	53
2. 한·태 친족 호칭어	55
3. 한·태 직함 호칭어	58
4. 한·태 대명사 호칭어	60
5. 한·태 기타 호칭어	61

제 4 장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제 1 절 호칭어 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62
1. 호칭어 교육의 현황	63
1) 태국에서 사용하는 교재 분석	63
2) 태국인 학습자의 호칭어 사용 현황 조사·분석	72
2. 호칭어 교육의 필요성	85
제 2 절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88
1. 등급별 호칭어 교육 항목	88
2.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92
1) 초급	92
2) 중급	98
3) 고급	103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110
【부 록】 설문조사	115
ABSTRACT	118

【 표 목 차 】

[표 3-1] 한국어 이름 호칭어의 성분 결합 관계 일람표	15
[표 3-2] 한국어친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어	20
[표 3-3] 한국어 처부모와 사위에 대한 호칭어	21
[표 3-4] 한국어 시부모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	23
[표 3-5] 한국어 부부에 대한 호칭어	24
[표 3-6] 한국어 직함 호칭어	28
[표 3-7] 한국어 2인칭 대명사	30
[표 3-8] 태국어 이름 호칭어	37
[표 3-9] 태국어 부모와 자녀에 대한 호칭어	42
[표 3-10] 태국어 친동기의 호칭어	43
[표 3-11] 태국어 처부모와 사위에 대한 호칭어	44
[표 3-12] 태국어 시부모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	45
[표 3-13] 태국어 부부에 대한 호칭어	45
[표 3-14] 태국어 직함 호칭어	48
[표 3-15] 태국어 2인칭 대명사 호칭어	50
[표 3-16] 한·태 시간에 따라 부부 호칭어 비교	55
[표 3-17] 한·태 직함 호칭어 비교	58
[표 3-18] 한·태 대명사 호칭어 비교	60
[표 4-1] 설문조사 대상인 태국 내 4개 한국어학과 현황	64
[표 4-2] 서울대학교 교재	65
[표 4-3] 경희대학교 교재	67
[표 4-4] 서강대학교	69
[표 4-5] 설문 조사 대상자	73
[표 4-6] 호칭어에 대한 설문지	73
[표 4-7] 나레수안 대학교 조사 결과	76
[표 4-8]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조사 결과	77
[표 4-9] 치앙마이랏차팻 대학교 조사 결과	79

[표 4-10] 송클라 대학교 조사 결과	80
[표 4-11] 4 개 대학교 평균 정답률	81
[표 4-12] 한국어 능력시험의 호칭어 등급별 목표(이민 : 2008)	89
[표 4-13] 태국인 학습자의 등급별 사용하는 한국어 호칭어 어휘	9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호칭어 교육의 기초적 논의로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 특징을 살피고, 그 특징을 비교 · 대조하여 나온 결과를 태국인 학습자의 말하기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호칭어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인 유학생, 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는 호칭어로서 이들이 한국에서 교수, 사장, 시부모 등과 자리를 함께할 때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호칭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중요하다. 최근 태국에는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국어나 한국 문화, 한국 관광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²⁾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위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이 커지고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도 점점 늘고 있다. 그

1) 태국에서 한국어교육은 1987년 송클라대학교(삿파니 캠퍼스)에서 선택 과목으로 한국외국대학교에서 온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개발했고 1999년 전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태국에서 현재까지 한국어교육은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으나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까지 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는 2명밖에 없으며, 석사학위자도 많지 않다. 한국어와 태국어에 관한 연구는 다른 언어에 비하면 연구 성과가 별로 없다. 한국어를 공부한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어가 어렵다, 한국어를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와 태국어는 차이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에서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어와 태국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 태국 내 21개 대학교에 한국 관련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이 가운데 16개 대학에서는 한국어문학을 학사 과정 전공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1. 5. 15)

런데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때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없이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경우 그들이 사용하는 호칭어를 통해 인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 호칭어는 태국인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빠, 언니, 당신’이라는 호칭어는 가족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 같이 쓰이기 때문에 호칭어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가족 관계인지 애인 관계인지 알기 어렵다.

한국이나 태국에서 태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호칭어 사용은 필연적인데, 호칭어는 언어예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나라마다 언어 예절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국어는 언어예절이 매우 중요한 언어이다. 경어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로서 호칭어를 통해 상대에 대한 예우를 표현한다. 호칭은 대인관계를 긍정적 방향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에 따른 호칭어를 사용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어 호칭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호칭어에 대하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실제적인 유형과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해서 그 특징을 태국어와 비교, 대조하여 한국어 호칭어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태국인 학습자이 어휘 학습의 어려움을 보이는 호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태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언어 내용에 들어 있는 언어문화를 알면 상대방의 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을 잘 보면, 대화에서 예절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예절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의 하나가 호칭어라고 본다.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서 호칭어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어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을 적절히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태국어 호칭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의 전개를 한다. 그리고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유형 특징을 중심으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두 언어의 관련성과 특징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유용한 자료가 된다.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태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고려한 교재라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태국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출판 한국어 교재 분석하도록 한다.

더불어 태국에서의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태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주요 대학을 선정하여 호칭어 사용에 대한 실제적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태국에서 한국어 전공학과를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인 송클라대학교, 부라파대학교, 실라빠진대학교, 시나카린위롯대학교, 마하사라캄대학교, 치앙마이랏차팻 대학교, 나레수안대학교 등 총 일곱 대학이다. 그 가운데 치앙마이랏차팻 대학교, 송클라대학교 뻔다니 캠퍼스, 나레수안대학교, 시나카린위롯대학교의 1, 2, 3, 4학년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한국어 호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와 태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 사람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호칭어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는 국어학 분야에서 호칭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호칭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에 대한 비교 연구와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국어학에서 한국어 호칭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갑수(1989)에서는 호칭어의 유형 분류를 통해 호칭의 올바른 사용을 지향하여 정확한 호칭어를 사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시한 호칭어 가운데 현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호칭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서, 낭자’는 현재 젊은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호칭어도 변화하는 것으로 박갑수(1989)에서의 예는 현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다.

황나보영(1993)에서는 현대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지역 대학생 사회의 용법을 중심으로는 호칭어란 용어가 ‘지칭’과 혼동이 되고 ‘호격어’에 관계 문제로 인해 여러 논저에서 모호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화 상대방을 면전에서 직접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에 한하여 ‘호칭’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호칭을 지칭과는 구분하고 있다.

박정운(1997)에서는 호칭어의 체계에는 언어 보편적인 요소도 있고 개별 언어적 특성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편적 요소와 개별 언어적 특성은 함께 언어유형을 형성하기도 한다. 한국어 호칭어 체계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호칭어 체계의 개별 언어적 특성을 조명해보고 또 서구 언어에서 보이는 호칭어 체계와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친근 호칭어 유형으로의 전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보이는 유형과 서구어에서 보이는 유형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장치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박정운(1997)에서도 현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유송영(1998)에서는 호칭어란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말’이고, 지칭어란 ‘화자가 제3자를 청자에게 또는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청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청자를 가리켜 이르는 말’ 이라고 하여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화자가 부르거나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자 호칭어’, ‘제 3자 지칭어’, ‘청자 지칭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형식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청자 대우 표시에 관계하는 ‘청자 호칭어’와 ‘청자 지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논의의 편의상 ‘청자 호칭어’는 ‘호칭어’로, ‘청자 지칭어’는 ‘지칭어’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호칭어의 예가 적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에 대한 논의가 없다.

왕한석(2005)에서 다룬 중심 주제 즉 과거 양반과 평민 간의 호칭어 사용방식 및 그것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기술은, 한국 사회에서의 언어사용 규범 및 그것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계급구조의 변화는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합사회에서 근대에 들어 폭넓게 일어난 현상이다. 사회에서 일어났을 언어 행동 특히 호칭어 사용 방식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의아스럽게도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호칭어 사용 방식의 변화 자체가 당시 역사적으로 진행중 던 신분계급의 소멸이라는 사회체계의 변화를 더욱 ‘강화’하고 ‘가속화’한 능동적 역할을 또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자의 경험으로 사용하는 호칭어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호칭어를 다양하게 다루지 않고 일부 한 쪽에 치우친 호칭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현대 일상생활을 위한 호칭어 역시 다루지 않았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특정한 호칭어에 대한 연구로 김혜숙(1991)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이 둘만 있는가 아니면 제삼자와 같이 있는가에 따라, 또 제삼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부부 간의 호칭어 사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중심 부부 호칭어를 제시하였다.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한국 부부 교사의 호칭어가 부부의 관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부 관계를 다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네 시기는 첫째 처음 만나 안면이 생긴 시기, 둘째 연인시기와 결혼 초기 시기, 셋째 자녀가 생긴 시기, 넷째 결혼 중 · 후반 시기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호칭어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윤진(2006)

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호칭어에 관련된 교수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호칭어의 유형 분류 등에서 논자의 직관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고 더욱 구체적인 호칭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언경(2005)의 한국어 교육에서 청자 대우법 연구에서는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청자 대우 양상 및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청자 대우법 현황을 분석하였다.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청자 대우 양상부분에서 친족 관계, 비친족 관계, 청자 대우법의 비규범적 사용 외에 호칭의 유형과 청자 대우법의 공기 관계도 함께 분석했다. 직함형 호칭, 이름형 호칭, 대명사형 호칭, 명사형 호칭, 친족형 호칭, 은유적 친족 호칭, 어린이 매개형 호칭 등 여러 가지 호칭어의 유형을 제시하며 교재에 나타난 호칭 현황을 알아봤다. 그리고 청자 대우법 교수에 있어 적절한 호칭의 사용 역시 반드시 함께 교육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의 호칭은 다른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그것이 문장 종결 어미와 공기를 이루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절한 사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며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습자 언어와의 사회학적 대조를 통해 그 쓰임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호칭은 형태는 다르나 언어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학습자 언어의 호칭과 한국어의 호칭의 사용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호칭을 상황과 관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칭어가 가지는 언어적 특성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호칭체계 모두를 제시할 필요 없이 간략하고 단순화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호칭의 유형과 공기하는 청자 대우 등급과 함께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교수해야 할 거라고 강조하였다.

제효봉(2010)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을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실재를 교재와 교수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를 본격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쁘라주업 인센(2005)의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우 표현에 관한 대조적 연구에서 호칭에 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태국어의 일반적인 호칭어, 사회적인 호칭어, 유정 인물 명칭에 대한 호칭어 형태가 비공식적인 경우와 공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예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호칭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연구는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김선호(2008)에서는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태국 내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초급과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과제중심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송클라대학교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말하기 수업에 적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시하였다. 케와린(2005)에서는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어와 태국어의 특징을 비교하고 학습자의 말하기 오류를 분석하여 태국인을 위한 말하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마(1998)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태국의 4개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교육 기간, 교사 수, 교육 과정, 교수 방법, 주당 시수를 점검하고 태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음성학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사회언어학적 오류 등으로 조사·분석하여 한국어 교육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는 한국어의 특성상 호칭어가 갖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살피고 한국어 교육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태국인 학습자들이 호칭어에 담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의 호칭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호칭어의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국인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호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하고 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분석과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 2 장 호칭어의 개념 및 유형

제 1 절 호칭어의 개념

호칭(terms of address) 또는 호칭어(forms of address)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word), ‘어구’(phrases), 또는 ‘표현’(expressions)을 의미한다 (Braun, 1988; Fasold, 1990; Oyetade, 1995). 호칭어의 전체 목록(repertoire)은 개별 사회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흔히 이름(names)이나 2인칭 대명사(second person pronouns), 친척 호칭(kinship terms)등이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호칭 형태인 것으로 보고된다. Braun(1988)에 의하면 호칭어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 또는 네 종류의 문법 범주로 구성된다. 하나는 대명사 즉, 주로 2인칭 대명사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는 명사형 호칭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접사형(affix) 호칭이 있다.

한국어에서 호칭어는 존댓말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성거철(1991)은 존댓말이나 높임법의 기본 원칙으로 ‘상위 청자 제약’, ‘장면 제약 또는 현장 제약’, ‘언어적 제약’ ‘격식성의 제약’을 들었다. ‘상위 청자 제약’에 대하여 성거철(1991)은 “이 제약은 모든 형태의 존대법 전체에 적용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강력한 제약이다. 이것은 매우 관련 인물들 가운데서 청자가 가장 상위의 존대 대상일 때는 다른 어떤 인물도 존대될 수 없는 제약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 한국말에서는 이런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이나 젊은 층에서는 이 제약을 따르지 않고 주체가 자기보다윗사람이면 들을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높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까닭에 표준 화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게 이르렀다. 회사에서도 들을이가 사장인 경우 말할이가 자신의 상관인 과장이나 부장을 주체로 삼아 발화하는 경우 주체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 적용의 엄격성은 현대 한국말에서는 완화되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왕한석(2005)은 존댓말은 흔히 “의사소통 사례(communicative event)상의 참여자들(participants) 간의 또는 참여자와

지칭자 또는 지시물 간의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문법적 부호화(grammatical encodings)” (Brown and Levinson 1978: 184, 281, 1987: 179, 276)로, 또는 “명사형 지시물 (및 지칭자) 또는 청자에 대한 존대(deference)의 기호로 사용되는 특수한 언어 형태들” (Shibatani 1994)인 것으로 규정된다. 존댓말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따르면, 호칭어는 존댓말의 범주와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언어 현상이 될 것이다. 즉 존댓말의 한 축인 ‘지칭자 존대어’(reference honorifics)는 지칭자 또는 지칭자와 관련되는 지시물에 대한 존대 표현이므로 호칭어와는 상호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존댓말의 또 다른 축인 ‘청자 존대어’(addressee honorifics)는 대화 상대방인 청자에 대한 존대 표현이므로, 이는 논리적으로 앞서 규정한 호칭어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존댓말은 비교 문화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언어 현상도 아니거니와, 또 존댓말이 발달한 언어에서는 대체로 존댓말을 호칭어와 구분되는 별개의 언어 범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존댓말을 넓은 범위로 설정하게 되면 청자 존대어까지 포함하는 언어 범주로 보게 된다. 호칭어를 좁은 범위 보아, 문법적 어휘적으로 특수하게 발달한 청자 존대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청자를 직접 가리키는 언어 표현들로만 호칭어를 한정시키는 방식이 있다. 이 글에서는 청자 존대어가 체계적 복합적으로 발달한 한국어의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일단 후자의 방식으로 호칭어의 개념을 이해하기로 한다.

박갑수(1989)에서는 ‘호칭’을 부름말, ‘지칭’은 가리킴 말이라고 하여 둘을 구분하고 있으며 호칭어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유송영(1998)에서 호칭어는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말’이고, 지칭어란 ‘화자가 제 3자를 청자에게 또는 자신을 청자(당사자)에게 가리켜 이르는 말’이라고 하여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박정운(1997)은 별도의 호칭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3인칭 지칭어를 제외하고 이인칭 대명사를 포함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을 호칭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천(2004)의 한국어 호칭 교육 방안 연구에서는 한국어 호칭 체계와 한국어 호칭 교육 현황 및 사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호칭 교육의 중점 사항과 방향을 제시했다. 호칭 교육의 중점에서 실제적 의사소통 중심 호칭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 대상 호칭의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

별 언어 조직 능력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호칭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언어 예절과 호칭의 사용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교육 대상 호칭 범위 및 호칭 유형별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호칭은 명사형 호칭, 결합형 호칭, 어린이 매개형 호칭 및 친소형과 생략형인 간접호칭으로 분류했다.

왕한석(2005)에서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을 호칭어라고 하였다.

이윤진(2006)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및 교수 시 유의점을 논의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호칭어 선택에서 3가지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정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둘째 낮은 관계인가 낮은지 않은 관계인가이다. 셋째 공인관계인가 사적인 관계인가이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른 호칭 적용 규칙과 차이를 예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호칭어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표현이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의 관점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호칭어’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로서 어휘, 구문,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을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호칭어의 유형

호칭어에 관한 초기 연구로 Brown & Gilman(1960)은 호칭어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Brown & Gilman(1960)의 연구는 권력(또는 힘)과 연대(감)의 대명사를 유럽 여러 언어에서 2인칭을 가리키는 한 쌍의 대명사들의 의미관계 (semantics)로 규명하고자 한 우수한 연구였다. 이 논문에서는 라틴어의 tu와 voi, 이탈리아어의 tu와 voi, 프랑스어의 tu와 vous, 스페인어의 tu와 vos, 그리고 중세 영어의 thou와 ye(뒤에 you로 대체되고 중국에는 you 하나로 통합됨)의 예와 같이, 유럽 여러 언어는 친밀의 T계

열 대명사와 공손의 V계열 대명사의 쌍으로 2인칭 대명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 T와 V계열의 두 대명사 사용 원리와 그것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중심 내용이다.

Brown & Gilmand(1960)의 이론을 바탕으로 호칭어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체적인 관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권의 호칭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박영순(1980:191)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어의 호칭어법 구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영순(1980)에서는 Roger Brown & M. Ford가 1961년 발표한 “Address in American English” 와 그 이후 Ervin-Trip이 1969년에 위의 논문에 기술된 영어의 호칭법을 좀 더 공식화한 호칭법을 인용하여 6가지의 영어 호칭법을 소개하였다.

<박영순(1980)에서 제시한 영어의 호칭법>

- ① Mutual TLN : 서로를 Title(직)과 Last Name(성)으로 부르는 호칭법으로 새로 알게 된 성인 사이에 주로 쓰며 거리감과 공식성의 호칭법이다.
- ② Mutual FN : 상호 친숙한 사이에 나누는 호칭이다.
- ③ Asymmetrical TLN-FN(비대칭호칭법) : 한 쪽에서는 TLN, 다른 쪽에서는 FN의 형태로 크게 연령과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연령의 차이가 있는 어른과 아이라든가, 같은 성인끼리라도 15년 이상의 차이가 날 때 윗사람이 TLN을 받는 대신 FN으로 연하의 상대방을 부른다.
- ④ LN alone : TN보다는 친숙하지만 FN보다는 덜 친숙한 사이에 쓴다.
- ⑤ Multiple Name(복수호칭) : 같은 대상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이다. TLN, FN, LN Nickname까지 섞어서 부르는 것을 말한다.³⁾
- ⑥ Title Alone (지위만으로 부르는 호칭) : 최대의 존칭인 지위만으로 (T) 부르는 호칭법이 있다(Professor, Madam, Senator)

3) Brown & Ford(1961)에서는 이러한 복수 호칭은 아주 가깝고 개방된 사이에서 쓰이는 호칭이라고 하였다.

Ervin-Trip(1969)은 그의 논문에서 제시한 이 호칭어들이 미국의 서부에 거주하면서 정상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표현을 대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호칭어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는 크게 보아 대화의 배경과 대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호칭어는 학자마다 유형화하는데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박영순(1980)에서는 ‘T+님(Title+님) 최상의 존칭 / LNT+님(Last Name+Title+님) / LNT(Last Name+Title) / FN(First Name)’으로 분류하였다.

황보나영(1993)은 호칭의 유형을 8 가지 ‘1.이름/이름-접사, 2.신분명(3접사), 3.친족명, 4.관계명/무관계명, 5.대명사, 6.감탄사, 7.영형, 8.외래어’로 분류하였다.

이무영(1994)에서는 한국어 호칭의 종류를 상황(내가 직접 상대를 부를 때, 상대와 직접 대화하면서 상대를 지칭할 때, 살아 있는 대상을 말할 때, 글로 쓸 때, 상대와 어른에게 대상을 말할 때, 상대의 아랫사람에게 대상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대상을 말할 때, 상대가 나에게 자기를 말할 때, 남이 나의 대상을 나에게 말할 때)에 따라 분류하였다.

한운정(2004)은 한국어의 호칭어를 10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1.성명+접사형, 2.성명(+조사)형, 3.성+직함명형, 4.친족 호칭어형, 5.대명사형, 6.텍호형, 7.외래어형, 8.‘여기요’형, 9.통칭적 호칭어형 (‘친족어 호칭어의 통칭형’, ‘직함 호칭어의 통칭형’), 10.기타형(별명 호칭어형, 호를 통한 호칭어)’이다.

박정운(2005)에서는 ‘1.이름 호칭어 유형, 2.직함 호칭어 유형, 3.친족 호칭어 유형, 4.대명사 호칭어 유형, 5.통칭적 호칭어 유형, 6.기타 호칭어 유형(별명 호칭어, 호칭어를 통한 호칭어, 지역명을 이용한 호칭어, ‘여보세요’류 유형), 7.영형 호칭어, 8.친근 호칭형’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언경(2005)은 ‘1.직함형 호칭, 2.이름형 호칭, 3.대명사형 호칭, 4.명사형 호칭, 5.친족형 호칭, 6.은유적 친족형 호칭, 7.어린이 매개형 호칭’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는 크게 ‘이름 호칭어,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기타 호칭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분류의 이유는 첫째, 이에 포함되는 호칭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호칭어의 의미 유형에 따라 명사형 호칭어를 이름, 친족, 직함 호칭어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의 명사형은 일반 명사 호칭어로 구분한다. 그리고 2인칭 대명사와 감탄사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셋째는 외국인에게 복잡하게 느껴지며 실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한국어 호칭어 학습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징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어를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이름 호칭어,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그리고 기타 호칭어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특징과 용법을 살펴보고 양국의 호칭어를 비교·대조하도록 한다.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은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를 잘 파악하여야 양국의 문화, 사회에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친숙하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할 것이며 한국문화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한국어 호칭어

1. 이름 호칭어

이름 호칭어는 상대의 이름이나 성을 부르는 말이다. 박정운(2005)에서는 이름이 호칭어로 쓰이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형상인 듯하지만(Brown & Ford, 1964; Hudson, 1980; Wardhaugh, 1986 등 참조), 호칭어로서의 이름의 사용에 따른 제약이나 세부적 특징은 언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에서 호칭어로 사용되는 이름 호칭어 유형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사람에게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이라는 이름에서 성을 포함한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을 제외한 부분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름이란 말의 두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전자는 ‘성+이름’으로 후자는 ‘이름’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Brown & Gilman(1960)와 Brown & Ford(1964)에서는 이름 호칭어는

상하 관계(power)와 친소 관계(solidarity)에서 사용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한국어 이름 호칭어 유형의 사용에 적용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름 호칭어가 일반적으로 윗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지만 아래 사람이나 동급의 청자에게는 호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친소 관계의 측면에서는 이름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친한 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청자가 어른일 경우에는 사용 제약이 있다. 어른인 청자에게는 청자가 동생이거나 비속 관계가 아니면 이름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이름 호칭어는 이름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이름에 호격조사 ‘-아’/‘-야’, ‘-이’를 붙이거나 ‘-씨’, ‘-님’, ‘-군’, ‘-양’ 등을 붙여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나 친소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

[표 3-1] 한국어 이름 호칭어의 성분 결합 관계 일람표

유형	단 독	조사, 접사, 의존명사 결합형 ⁴⁾							별명
		-아/ 야	-이	-씨	-님	-군/양	-선생	미스터/ 미스 -	
성+이름	✓	X	✓	✓	✓ [?]	✓	✓	X	짱구(야), 쌍칼, 돼지, 물개, 메기, 빼빼
이름	✓	✓	✓	✓	✓ [?]	✓	✓	X	
성	X	X	X	✓	X	✓	✓	✓	

위의 표에서 보이듯 이름에 호격조사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호격조사 ‘-아/야’는 ‘성+이름’에는 붙지 못 하고 ‘이름’에 붙여 쓸 수 있다. 이름 호칭어 유형은 주로 어린이 청자에게 사용되지만, 어른 청자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나 학창시절에 맺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 청자나, 자식과 같은 비속 청자와 동생 청자에게 사용되기도 한다.

호격조사 ‘-이’는 상대의 ‘성+이름’이나 ‘이름’에 붙여 호칭어를 형성하는데, 호격조사 ‘-아/-야’가 붙은 이름 호칭어 유형보다 더 소원한 관계에 있

4) 줄표(-)는 비자립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붙여 쓸 수 있는 어휘를 의미한다.

는 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이름 호칭어 유형은 Hwang(197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지난 청자에게 사용된다. 어린 청자에게는 꾸짖을 때와 같이 어느 정도 거리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 (1) ㄱ. 소영아! 학교에 가?
 ㄴ. 수희야! 왜 밥 안 먹어?

예문(1)을 보면 호격조사 ‘-아’는 상대의 이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사용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야’를 붙인다.

- (2) ㄱ. 수진 씨! 먼저 가세요?
 ㄴ. 박은영 씨! 다시 복사해 주세요.
 ㄷ. 김 씨! 회의에 같이 가자고요.

의존명사 ‘씨’는 ‘성+이름’, ‘이름’, ‘성’에 모두 붙여 사용될 수 있다. 이름 호칭어의 유형은 성인청자에게만 사용된다. ‘성+이름’이나 ‘이름’에 씨가 붙은 호칭어 유형은 화자와 청자가 가깝지 않을 때 사용한다. (2)의 ‘성+이름+씨’와 ‘이름+씨’는 둘 중에서도 ‘성+이름+씨’의 유형보다 더 거리감이 있다. 다소 공식적이며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름+씨’는 비공식적이며 상대방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서로 친근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로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약간의 존대를 의미하는 호칭이다. (2ㄷ)과 같이 ‘성+씨’의 형태는 박상천(2004: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남자들 간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어이며 현재는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3) ㄱ. *최님! 어서 오세요.
 ㄴ. ?강성희 님! 약을 받으세요.

최현배(1961)에는 이름에 존대 접미사인 ‘-님’이 붙는 ‘김철수 님’이나 ‘김 님’ 등이 호칭어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ㄱ)에서는 ‘성+님’의 유형은 현재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3ㄴ)의 ‘성+이름+님’의 유형도 일대일의 대화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병원, 약국 등 공공기관이나 편의시설에서 손님을 부를 때와 같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현재 일상생활에는 특히 인터넷 같은 매체에서는 ‘성+이름+님’과 ‘이름+님’의 호칭어 유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님’이 인터넷 언어로 쓰일 때 상대방의 나이나 친소 관계에 상관없이 부르는 말로 많이 쓰인다. 접미사 ‘-님’과 ‘-씨’는 모두 상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며, ‘-님’이 ‘-씨’보다 높임의 정도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4) ㄱ. 이 군! 시험을 잘 봤어.

ㄴ. 수희 양! 과제를 다 검토했네.

‘군/양’은 ‘성+이름’, ‘이름’, ‘성’ 모두에 붙어 호칭어를 형성할 수 있다. 의존명사 ‘군/양’은 화자보다 나이가 어린 청자를 부를 때 쓰인다. (4ㄱ)에 서와 같이 주로 대학생 정도의 나이가 든 청자에게 사용된다. ‘군’이 쓰이는 조건은 남자인 청자를 상대로 하며, 대명사 ‘자네’가 쓰이는 조건과 아주 흡사하다. 그런데 상대가 여자일 때에는 제약이 따른다. (4ㄴ)의 ‘수희 양’이나 ‘이수희 양’과 같이 ‘성+양’, ‘성+이름+양’은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가 여학생들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어이다. 또한 방송과 같이 공식적인 상황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부르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군’과 ‘-양’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양’은 그 사용 범위가 더욱 좁아 ‘김양’이나 ‘수희 양’으로 부르는 일은 회사에서 심부름 하는 소녀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 대학 교수가 여자 제자를 그렇게 부르는 일은 어울리지 않고 실제 사용되는 경우도 매우 적다.

‘성+이름, 이름, 성’에 ‘선생’이 붙은 형태는 주로 교수가 대학원에 다니는 제자를 정중하게 대우해 호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

(5) ㄱ. 미스터 김!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 다 오셨어요?

 ㄴ. 미스 박! 이 보고서는 다시 확인하세요.

(5 ㄱ, ㄴ)의 ‘미스터’와 ‘미스’는 차용된 외래어이다. (5 ㄱ)의 ‘미스터(Mr.)’는 남성 청자에게 사용하고 (5 ㄴ)의 ‘미스(Miss)’는 여성 청자에게 사용한다.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 사용이 현격히 줄었다.

(6) ㄱ. 은선! 가방 가져왔니?

 ㄴ. 전지영! 이 과자 다 먹었어?

이름이 단독으로 호칭어로 쓰이는 호칭 유형으로는 ‘이름’과 ‘성+이름’ 모두 가능하지만 (6 ㄱ)의 ‘이름’ 형태는 좀처럼 잘 쓰이지 않고, 쓰인다면 아이들을 꾸짖을 때와 거리감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반면에 (6 ㄴ)에서 ‘성+이름’ 유형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7) ㄱ. 짱구야! 오늘 밖에 안 나갈래?

 ㄴ. 돼지야! 더 먹지 마!

마지막으로 별명 호칭어로 (7 ㄱ, ㄴ)의 ‘짱구’와 ‘돼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별명에는 유아, 청소년이 사용하는 ‘짱구’와 같이 친근감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쌍갈’과 같이 폭력배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있다. 친근감이 있는 별명들은 ‘이름’ 호칭어와 같이 친근감을 나타내 주로 호격조사 ‘-아/야’가 붙어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부정적 느낌이 드는 별명들은 그러한 호격조사 없이 단독으로 주로 사용된다.

별명 호칭어와 유사한 것으로 호를 통한 호칭어가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청자가 학춘과 같은 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름 대신 그러한 청자의 호를 통해 청자를 부른다. 이러한 호 호칭어는 전통적으로는 많이 사용되

던 호칭어 유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호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용된다.

2. 친족 호칭어

친족 간의 호칭어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호칭어로 사용되는 친족호칭어 유형과,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제삼자(매개체)가 있어 그러한 매개체와 청자와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호칭어로 사용되는 ‘매개 친족 호칭어’ 유형이 있다.⁵⁾ 한국어는 친족어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나이와 성별, 결혼 여부 및 계통(부계 또는 모계)등의 요소에 따라 호칭어도 영향을 받는다.

1) 부모와 자녀에 대한 호칭어

(8) ㄱ. 딸 : 아빠! 식사 하셨어요?

아버지 : 응, 먹었어, 지영아!

ㄴ. 아들 : 어머니! 가방 좀 주세요.

어머니 : 응, 알았어. 우리 아들.

ㄷ. 며느리 : 아버님! 지금 출발하시겠어요?

아버지 : 수진 어멈아! 먼저 가거라.

부모에 대한 호칭어로 보통 기본형인 ‘아버지’, ‘어머니’ 형태, 높임형은 ‘아버님’, ‘어머님’의 형태, 친근형 ‘엄마’, ‘아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8ㄱ)의 친근형은 주로 어린 화자가 부모인 청자를 부를 때 사용한다. 화자가 어른이 되면 주로 높임형을 사용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친근형에서 기본형으로 일찍 옮겨간다. (8ㄷ)의 높임형은 주로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사용하는 예이다.

5) Park Kim(1976)에 친족어 호칭어 유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있음.

친족인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항상 위아래가 있다. 청자가 윗사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친족 호칭어를 사용한다. 자녀가 미혼일 경우에는 보통 ‘이름+아/야’로 부르고 성인 자녀에 대한 호칭어는 자녀가 결혼하여 아이가 생기면 전과 생긴 뒤가 다르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자녀는 이름으로 부르고 아이가 생긴 뒤에는 아이 이름을 넣어 이름+아범(아비), 이름+어멈(어미)라고 한다. 그리고 (8ㄴ)의 어머니의 발화에서 ‘아들’은 ‘표준화법’에서 자녀에 대한 지칭어로 타인에게 쓰이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처럼 자녀에게 직접 쓰기도 한다.

2) 친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어

국립국어연구원(1992)의 ‘표준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 누나, 오빠, 언니 등 친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어는 [표3-2]와 같다.

[표 3 -2] 한국어 친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어

별	오빠	오빠의 아내	언니	언니의 남편	남동생	의 아내	생	생의 남편
남성	형, 형님	아주머니, 아주머니, 형수님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이름, 동생	매부, 서방
여성	오빠, 오라버니 (님)	언니, 새언니	언니	형부	이름, 동생	올케	이름, 동생	서방 (님)

(9) ㄱ. 남동생 : 형님! 부동산에 좀 같이 가요.

형 : 왜? 무슨 일인데?

ㄴ. 여동생 : 오빠! 내일 컴퓨터 좀 빌려줘.

오빠 : 응, 아, 은선아! 컴퓨터 CD도 필요해?

한국 사회에서 친동기와 그 배우자는 성별에 따라 호칭어가 다르다. (9ㄱ)과 같이 남자 동기간에 ‘형’으로 부르는데 나이가 들면 ‘형님’으로 부를 수 있다.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이다. 전통적인 호칭은 ‘아주머님’, ‘아주머니’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현재 많이 쓰이는 ‘형수님’도 인정했다. 그리고 친동기가 여자인 경우에 ‘누나’로 부르는데 나이가 들면 ‘누님’의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매부’, ‘매형’, ‘자형’으로 부른다.

남동생에 대한 호칭어는 ‘이름’, ‘아우’, ‘동생’이다,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제수씨’, ‘계수씨’이다. 여동생에 대한 호칭어는 ‘이름’이나 ‘동생’이며,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는 ‘매부’, ‘이름+서방’으로 부른다.

여자가 나이가 많은 남자 동기에게 (9ㄴ)과 같이 ‘오빠’를 사용하거나 ‘오라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언니’, ‘새언니’인데 ‘올케(언니)’를 사용하기도 한다. 남동생에게는 ‘이름’이나 ‘동생’을 부른다.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올케’로 부른다. 언니의 남편은 ‘형부’로 부른다. 여동생이 있는 경우는 부를 때 ‘이름’이나 ‘동생’으로 하며,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성+서방(님)’으로 부른다.

3) 처부모와 사위에 대한 호칭어

[표 3 - 3] 한국어 처부모와 사위에 대한 호칭어

호칭어	처부모		사위
	장인	장모	
	아버님, 장인 어른, 아버지	어머님, 장모님, 어머니,	이름+서방, 이름+군, 이름+아비(아범),

			여보게
--	--	--	-----

- (10) ㄱ. 사위 : 아버님! 어디 가십니까?
 장인 : 아! 근호 서방! 운동하러 가려고.
 ㄴ. 사위 : 어머니! 여기 가방입니다.
 장모 : 무슨 가방?
 사위 : 선물입니다.
 장모 : 고마워, 민수 아범.

아내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중에서 표준화법 제정 당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⁶⁾ 그런데 세태가 바뀌어 요즘은 사위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처부모도 많고, 사위 쪽에서도 처가 쪽의 출입이 옛날보다 현저하게 잦아져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부모를 부를 때 친부모에게처럼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은 곤란하나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장인 어른’, ‘장모님’과 함께 ‘아버님’, ‘어머님’도 표준으로 정하였다.⁷⁾

사위를 부르는 말도 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세대간, 지방간의 차이가 크다. 대체로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데 반하여 중부지방에서는 ‘이름+서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부 지방에서도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하여 어떻게든 부르지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사위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군’ 하는 이름도 있다. 처부모가

6)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처부모에 대한 호칭을 정하는데 지역간 세대간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친부모를 일찍 여윈 어떤 분은 ‘아버님’, ‘어머님’하는 것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서 이미 3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렀다고 한다. 또 이북 출신인 70대의 어떤 분은 자신이 장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결혼한 아들이 처부모를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부지방 출신의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이므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 현실이 어떻든 인륜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

7) 『표준 화법 해설』(국립국어연구원, 1992:25)에 따르면 자신의 장인, 장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사위를 부르는 말은, 현재의 언어 실태를 중시하여 ‘이름+서방’⁸⁾, ‘이름+아버(아범)’, ‘여보게’를 표준으로 정하였다.

4) 시부모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

[표 3 - 4] 한국어 시부모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

호칭어	시부모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버님, 아버지, 아빠	어머님, 어머니,	아가, 애, 며느리, 애 어미야, 새아가, 어머(어멈), 이름+어미(어멈), 이름+엄마, 너, 이년

(11) ㄱ. 며느리 : 아버님! 차 드세요.

시아버지 : 고맙다. 새아가.

ㄴ. 며느리 : 어머니! 이 옥수수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 너희 가져가.

애 어멈아, 이 고추도 좀 가져가라.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시아버지도 많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도 흔하다. 이러한 마음은 호칭어에도 나타나서 시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하고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는 며느리도 있다. (11ㄱ)과 같이 실제로 시아버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님’이라고 ‘님’자를 붙여 부르면 거리감이 있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자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어로 사용했고,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추어 불러야 할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님’을 표준으로 정했다.

8) 친족 호칭어로 쓰이는 ‘성+서방’의 경우는 여동생의 남편, 아내 여동생의 남편, 조카의 남편에게도 사용한다. ‘서방+님’은 남편의 아우,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에게 쓰인다.

(11ㄴ)의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아버님’만을 정한 것과는 달리 시며어
니에 대해서는 ‘어머님’, ‘어머니’ 두 가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
간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 시아버
지보다는 친근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의 호칭은 다양해 ‘아가’, ‘애’, ‘며느리’, ‘애 어미야’,
‘새아가’, ‘어머(어멈)’, ‘이름+어미(어멈)’, ‘이름+엄마’부터 ‘너’, ‘이년’ 등의
비속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20여 가지 가까이 된다고 한다.

5) 부부에 대한 호칭어

[표 3 - 5] 한국어 부부에 대한 호칭어

호칭어	남편	아내
	여보, 아빠, 자기, 자기야, 당신, 오빠, 아저씨, 임자이름+씨, 이름+야, 이봐요, 형, 성+선생, 너, 남편, 미스터+성, 영감, 애기 아빠, 허니, 달링	여보, 당신, 너, 자기, 자기야, 이봐, 마누라, 할멈, 부인, 애기 엄마, 허니, 달링

- (12) ㄱ. 남편 :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아내 : 자기야! 의자 위에 없어?
 남편 : 아! 여기 있다. 우리 마누라! 미안.

(12ㄱ)를 보면 부부사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호칭어는 ‘여보’라고
할 수 있다. ‘여보’는 성별 구별 없이 서로 상대방에게 부를 수 있는 단어
이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호칭어는 최근에 다양해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오빠’, ‘자기야’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나이에 따라 남편에 대해 ‘남편’,
‘야’, ‘이봐요’, ‘임자’, ‘영감’ 등으로, 아내에 대해 ‘너’, ‘이봐’, ‘마누라’, ‘할
멈’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아내를 가리킬 때 대부분 낮춰 부르는 경우가 많다. 높여 부르는 말이라

해도 사극 드라마 같은 데서 대감이 지그시 목에 힘을 주며 ‘부인’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라는 말 정도일 것이다. 즉 ‘부인’은 예전에 사대부 집안의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이르던 말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로 ‘부인은 안녕하시지요?’, ‘저분이 부장님 부인이십니다.’와 같이 사용한다. 따라서 자신의 아내에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남편에 대한 호칭어를 조사한 서정수(1991:77)에 의하면 ‘여보’(65.5%), ‘아빠’(22.1%), ‘자기’(10.3%)로, 이 세 가지 호칭어가 전체의 9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연구소(1992:128)가 소설 등 문헌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름+씨’, ‘이름+야’, ‘자기’, ‘자기야’, ‘당신’, ‘이봐요’, ‘아저씨’, ‘오빠’, ‘형’, ‘성+선생’, ‘너’, ‘남편’, ‘미스터+성’, ‘임자’, ‘영감’ 등 세대별로 2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개방화와 남녀 평등화의 추세에 따라 남편을 높여 부르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다른 친인척 간에 쓰는 호칭어들이 원용돼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⁹⁾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부 호칭어 ‘허니’, ‘달링’로 있다.

6)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웃 사람들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친족이 아닌데도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부를 때 상대방의 나이, 성별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친족 호칭어를 선택하게 된다. 보통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로 ‘아줌마(아주머니)’, ‘아저씨’, ‘이모’, ‘언니’, ‘누나’, ‘형’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이 있다.

박갑수(1989)에서는 친족 호칭어가 일반적인 호칭어로 대응되는 경우, 화자가 자기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선화(2002)의 공공 상황에서의 호칭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르는

9) 국립국어연구원(1991), 『우리말의 예절』, p77.

사람을 부를 때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호칭어 사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대와 30대 남녀에게는 주로 ‘오빠’, ‘형’, ‘언니’, ‘누나’를 사용하고, 40대와 50대 남녀에게는 주로 ‘삼촌’, ‘아저씨’와 ‘아줌마(아주머니)’를 사용하여 부르며, 60대 이상 남녀에게 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사용한다. 실제로 친족 호칭어를 친족이 아닌 일반인에게 범용하여 사용할 때 상대방의 나이 맞게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대 남자가 70대 모르는 여성 노인에게 ‘할머니’라고 부른다. 자기 나이에 비해 할머니가 되는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의 맞게 호칭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도 화자가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나이를 기준으로 호칭어를 선택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13) ㄱ.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ㄴ. 언니! 오늘은 수업 없어요?
 ㄷ. 이모! 김치볶음 하나 주세요.
 ㄹ. 아저씨! 여기 근처에 서점이 있어요?

(13ㄱ~ㄹ)의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 ‘아줌마(아주머니)’, ‘아저씨’, ‘언니’, ‘오빠’의 사용은 다른 호칭어 유형과 달리 구체적인 사용 상황의 제약을 받는 특징이 뚜렷하다. 즉 주로 비공식적이고 격식을 갖출 필요 없는 상황에서 잘 쓰이거나 비격식 상황에서 쓰이는 것은 그 특징입니다. ‘아저씨’와 ‘아줌마(아주머니)’를 사용하는 경우는 40대나 50대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한다. 일상생활에서 친구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의 동년배나 친구의 어머니, 아랫사람의 아내 등에 대해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화자가 성인인 경우 친구의 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¹⁰⁾

‘형’, ‘오빠’, ‘누나’, ‘언니’는 학교 선후배 사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일반인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다. 호칭어만 사용할 수도 있고 친족 호칭어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 ‘이름+ 친족어’ 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

10) 국립국어연구원(1991), 『우리말의 예절』, p77.

면 ‘상호 형’, ‘성희 언니’와 같다. 친족이 아닌 상대방을 친족 호칭어로 부르면 상대방하고 친분이 있거나 더 친해지려고 사용하는 호칭인데 성까지 붙여 ‘이상호 형’, ‘김성희 언니’와 같이 부를 때는 다소 소원한 느낌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물건을 파는 여자 점원에게 여자나 남자 손님이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모르는 여자 점원에게 이름이나 직함호칭을 쓸 수 없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친근하게 이루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환자가 간호사에게 범용화한 친족어를 사용한 ‘언니야’의 예도 있다.¹¹⁾

‘오빠’의 친족 호칭어는 연인 사이에 여자가 남자친구를 부르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결혼하여 남편이 된 다음에도 계속 ‘오빠’라고 부르는 아내도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오빠’와 ‘언니’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족 호칭어로부터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호칭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사용역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화자가 자기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나이를 생각하고 사용하는 범용화된 호칭어이다. 나이가 60대 이상인 노인에게 사용하고 그 노인들이 서로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부르는 친족 호칭어이다. 이모는 어머니와 친정을 같이 하고 있어서, 친정의 번성을 함께 기원하고 기뻐하며, 친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하는 등 친정의 친족 집단 외곽에 위치하면서도 항상 친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모는 화자와는 혈연을 같이하고 있는 친척이며, 외가를 떠나 있다는 점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권위보다는 애정에 바탕을 두고 친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모’란 한국인에게 가족과 가까운 친척으로 온화하고, 착하고, 포용력 있으며, 친근한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주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느낌에 따라 범용화된 이모는 40대 중반의 가게 주인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사용한다. 나이가 좀 어린 경우에는 ‘이모’보다는 ‘언니’라

11) 강주영(2009), 「방송언어의 호칭어 사용 양상 연구」, p48.

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3. 직함 호칭어

직함 호칭어는 상대를 부를 때 이름 대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름과 직함을 함께 부르는 경우도 있고 직위가 화자보다 높거나 존대해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직함에 접미사 ‘-님’을 수의적으로 붙여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이름+직함’ 형태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직위’ 조건에서 ‘직위’가 ‘연령’ 변수보다 우선 작용한다.

직함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연령 차이, 직위의 차이, 상황적 변수 등에 의해 다양한 변이형들을 가진다. 직함을 중심으로 한 호칭어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 3 - 6] 한국어 직함 호칭어

‘직함+님(교수님, 사장님, 과장님)’의 형태는 청자를 높이는 호칭어형으로 전형적으로윗사람에게 사용된다. 동급 청자에게 사용할 때도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에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면, 청자를 대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성+이름+직함+님(김동아 회장님, 이병훈 사장님)’, ‘성+직함+님(조 상무님, 박 대리님)’ 호칭어형은 일반적으로 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 이상 있을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들은윗사람이나 동급 청자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아랫사람에게 쓰는 경우는 그

러한 청자를 대우해 주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이름+직함+님’과 ‘성+직함+님’은 ‘직함+님’은 모두 청자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지만 후자는 전자보다 높임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성+이름+직함+님’은 ‘성+직함+님’에 비하면 높임의 의미가 약하고 일반적으로 손윗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성+이름+직함’과 ‘성+직함’ 형태는 주로 동급이나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된다. 군대나 경찰서, 학교 정부기관들이 공적인 기관의 경우도 회사에서의 사용 방법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박 대위(님)’, ‘선생님’, 등처럼 그 사람의 성 뒤에 직위를 붙여 호칭어를 사용한다. ‘성+이름+직함(이동욱 부장, 이동건 이사)’, ‘성+직함(김 사장, 박 부장)’ 형태는 주로 동급이나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된다.

직업 유형 호칭어는 모든 직업에 두루 사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판사’, ‘감독’ 등 전문직은 호칭어로 사용되는 반면에 ‘사육원’, ‘우편배달부’, ‘농민’ 등의 일반직은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직함이 없는 선배 또는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부르는 경우는 꼭 ‘-님’을 붙여 ‘선생님’, ‘선배님’ 또는 ‘성+선배님’, ‘성+이름+선배님’처럼 부른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남자 직원끼리 ‘성+형’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족 호칭에서 ‘형’은 윗사람을 부르는 말이지만 사회에서 ‘형’은 주로 동년배이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나이 지긋한 여자 직원은 ‘성+여사’ 또는 ‘성+이름+여사’라고 부를 수 있다.

한국에서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한국에서는 친족 호칭어나 사제관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중선(2008)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원래 직함 호칭어로 사용한 ‘선생님’, ‘사장님’ 등이 요즘 상대방의 호칭이 애매할 때 통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격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전혀 사전 지식이 없을 때 남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아닌 일반 가게나 음식점의 주인에게 회사에서 쓰인 ‘사장님’이라는 호칭어 사용도 볼 수 있다. 현재 장사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것으로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다른 직함 호칭어인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등과 같은 호칭어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4. 대명사 호칭어

2인칭 대명사는 호칭어로 기능을 한다. 다만 일반명사 호칭어도 같은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여기에 포함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1) 2인칭 대명사

한국어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인 인칭 대명사가 문장에서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와 비슷하다. 특히 한국어는 존대법 체계가 분명한 언어이므로 인칭 대명사에도 그 자체에 높임과 낮춤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가 있다. 백봉자(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법사전』)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표 3-7]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7] 한국어 2인칭 대명사

Hwang(1975)에서는 ‘너’, ‘자네’, ‘당신’만을 2인칭 단수 대명사로 들고 있고,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너’, ‘자네’, ‘당신’, ‘그대’를 2인칭 단수 대명사로 보고 있고, Cho(1982)에서는 ‘너’, ‘자네’, ‘당신’, ‘그대’ 이외에 ‘자기’, ‘임자’를 첨가하고 있다. Pae(1974)에서는 Cho(1982)의 항목에 ‘댁’, ‘어른’, ‘어르신’을 첨가하여 9개의 2인칭 단수 대명사를 들고 있는데, 박정운(2005)에서는 ‘임자’, ‘댁’, ‘어르신’, ‘선생님’을 제외한 ‘너’, ‘자네’, ‘자기’, ‘당신’, ‘그대’만을 2인칭 단수 대명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실제 사용에 제한이 많다. 보통 한국에서 웅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2인칭 대명사가 있지만 많지 않다. 청자가 웅사람에게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자리에 호칭어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한국 언어 사회에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오직 단순한 대명사의 가리킴으로써 부르는 것에는 제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는 일반적으로 어린 청자에게 사용하거나, 어렸을 때나 학창시절에 맺은 친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나 아래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 ‘너’를 사용하는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4) 가족, 친인척 관계에서 사용하는 ‘너’

- ㄱ. 아버지, 엄마 → 아들, 딸
- ㄴ. 시아버지, 시어머니 → 며느리
- ㄷ. (사촌)형, 누나, 오빠, 언니 → 남, 여, 동생
- ㄹ. 남편 → 부인

(15) 친족,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사용하는 ‘너’

- ㄱ. 선생 → 학생
- ㄴ. 선배 → 후배
- ㄷ. 아버지, 어머니 친구 → 친구 아들, 딸
- ㄹ. 동네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 동네 젊은이, 아이들
- ㅁ. 가게 주인 → 점원
- ㅂ. 애인 → 애인

‘자네’는 성인인 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데, 직함 호칭어로 부를 수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가깝고, 이름 호칭어로 부를 만큼은 가깝지 않은 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자네’는 주로 남성 화자와 청자들 사이에 사용된다.

(16)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인 성인이 나이가 더 적은 남성인 성인에서 사

용하는 ‘자네’

- ㄱ. 장인 → 사위 (예비 장인 → 예비 사위)
- ㄴ. 스승 → 장성한 제자, 교수 → 학생, 조교
- ㄷ. 선배 → 후배
- ㄹ. 직장 상사 → 부하 직원
- ㅁ. 동네 사람 → 동네 사람(어른→젊은이, 형님→아우)
- ㅂ. 아버지 친구 → 친구 아들
- ㅅ. 손위 처남 → 매부 (매부 → 손아래 처남)
- ㅇ. 형 친구 → 친구 동생

(17)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인 성인이 나이가 더 적은 여성인 성인에서 사용하는 ‘자네’

- ㄱ. 스승 → 장성한 제자
- ㄴ. 교수 → 학생, 조교

(18) 나이가 더 많은 여성인 성인이 나이가 더 적은 여성인 성인에서 사용하는 ‘자네’

- ㄱ. 언니 → 여동생
- ㄴ. 손위시누이 → 손아래 올케
- ㄷ. 윗동서 → 아랫동서
- ㄹ. 시이모, 고모 → 조카며느리
- ㅁ. 동네 사람(어른) → 동네 사람(젊은이)

(19) 나이가 더 많은 여성인 성인이 나이가 더 적은 남성인 성인에게 사용하는 ‘자네’

- ㄱ. 장모 → 사위
- ㄴ. 누나 → 남동생
- ㄷ. 어머니 → 아들
- ㄹ. 직장 상사 → 부하 직원

‘당신’은 자네를 쓸 수 있는 청자보다 더 나이도 들고 거리감도 더 있는 청자에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네’와 마찬가지로 주로 남성 화자와 청자들 사이에서 사용된다. ‘당신’은 부부 사이에 많이 사용된다. 강주영(2009:31)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신’은 예사낮춤과 가장 잘 공기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존대]의 자질이 있으며, 화자와 청자의 친밀 정도에서는 친하고 허물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비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외의 경우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20)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나 직위가 높거나 또는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는 ‘당신’

ㄱ. 집 주인 → 정원사나 집안일을 돌봐주는 가정부

ㄴ. 건물주인 → 건물관리인이나 수위

(22) 부부 사이에서 사용하는 ‘당신’ : 남편 ↔ 부인

(23) 연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당신’ : 애인 ↔ 애인

(24) 안면은 있으나 서로 잘 모르는 사이 또는 처음 보는 사이에 시비나 다툼등으로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은 관계에서 사용하는 ‘당신’

(25)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르는 또는 낯선 관계에서 사용하는 ‘당신’

(26) 그리 가깝지 않거나 또는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사용하는 ‘당신’

‘자기’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2인칭 대명사로 ‘자네’와 마찬가지로 성인인 청자에게 사용되는데, 주로 젊은 연인들 사이나 젊은 부부 사이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민(2008:47)에 의하면 최근에 ‘자기’라는 말이 여성 화자끼리나 남성 화자들 사이에서도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¹²⁾ 하지만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은 제한이 있으며, 보통 20대 후반부터 50대 사이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젊은 중년층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라는 말보다 더 상대방을 대우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Park(1992)의 논의에서도 ‘자기’가 남성들 사이에 쓰이는 ‘자네’와 유사한 의미적 특성을 띠면서 여성 화자와 청자 사이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7) 부부 사이에서 사용하는 ‘자기’ : 남편 ↔ 부인(호격 조사 ‘야’를 붙이기도 함)

(28) 연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자기’ : 애인 ↔ 애인(호격 조사 ‘야’를 붙이기도 함)

‘그대’는 청자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원래는 한국 문학 작품을 비롯하여 글에서 상대방을 친근하게 부르는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다.

‘여러분’은 2인칭 대명사인데 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사용한다. 청자를 다소 높여 부르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친한 관계이거나 청자가 어린 아이나 청소년 정도라면 ‘애들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2인칭 대명사의 복수 형식은 ‘너희’ 혹은 단수 2인칭 대명사 뒤에 복수 접미사 ‘들’ 붙여 ‘여러분’, ‘너희들’, ‘자네들’, ‘당신들’ 등이 있다.

한국어 호칭어 가운데 그 예가 간단해 보이는 2인칭 대명사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2인칭 대명사의 복수 형식은 ‘너희’ 혹은 단수 2인칭 대명사 뒤에 복수 접미사 ‘들’ 붙여 ‘여러분’, ‘너희들’, ‘자네들’, ‘당신들’ 등이 있다.

2) 일반명사

박갑수(1989)에서는 명사형 호칭어가 상대방을 높이거나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방송언어의 발화 상황에서는 존대의 호칭어 외에도 ‘가시나’, ‘여편네’, ‘마누라’, ‘막내’ 등의 상대를 낮추어 이르는 명사형 호칭어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 명사 호칭어는 지칭어가 호칭어로 전용되어 나타나는 전용적 호칭어가 대부분이며, ‘사모님’, ‘선배님’, ‘선생님’, ‘어르신’, ‘어른’, ‘젊은이’, ‘학생’, ‘총각’, ‘부인’, ‘환자분’, ‘아드님’, ‘며

느님', '신랑', '신부', '아가씨', '손님', '박사', '주인공', '막내', '여편네', '마누라', '가시나'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아내여', '친구야' '가시나야'와 같이 '-여, -야'가 결합된 형태도 있다. 웨딩 촬영하는 중에 사진사가 '신랑(님)', '신부(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유정(2004)에서는 '아가씨'는 호칭어로서 처녀나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서의 '아가씨' 의미와 더불어 '손아래 시누이를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아가씨'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젊은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부정적 어감으로 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하는 호칭어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가씨' 앞에 직업 명칭을 붙여 쓰는 형식도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아가씨', '안내원 아가씨', '점원 아가씨'이다.¹³⁾

'총각'은 20대 결혼하지 않은 한국 남성을 부르는 말이다. 보통 40대 이상의 나이가 있는 화자가 20대의 남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장님'은 원래 회사 책임자의 직함이지만, 처음 만나거나 낯선 일반인 청자의 직함을 모를 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지려나(2009:24)에서는 현재 한국 사람들의 심리 태도에 의하면 영세 식당이나 영세 가게 등 조그만한 가게의 주인에 대하여도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사모님'의 '사모'는 원래 '스승의 부인'이라는 뜻이지만 통칭 호칭어로 사용하는 '사모님'은 주로 이름이나 직함 또는 직업을 모르는 기혼으로 보이는 여성을 대접해 부를 때 많이 사용되고 상점이나 회사의 직원이 책임자나 상사의 부인을 '사모님'으로 부르기도 한다.¹⁴⁾

'손님'은 원래 상점 등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이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현재는 꼭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도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을 높여 부르는 경우에 '고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고객'은 '고객 만족 센터', '고객 지원 센터' 등과 같이 가리켜 이르는 말로는 쓸 수 있지만, 부름말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객'에는 이미 높임의 뜻이 있으므로, '-님'을 붙여 '고객님'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3) 지려나(2009), 『한중 현대사회 호칭어의 대비연구』

14) 위의 책, p24.

고객'의 순화어로 '손님'을 정해 놓았으니, 단어를 쓰는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자의 출신지역명을 이용한 '수원택'과 같은 호칭어들은 또 다른 호칭어 유형을 이룬다. 이런 호칭어들은 여성청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친정이 수원인 여자를 시택 마을의 사람들이 '수원택'으로 부르다든지, 대전에서 온 비전문직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 청자를 '대전택'을 부를 수 있지만 다소 비하하는 어감이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다. 현재 '지역+택'은 한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다.

5. 기타 호칭어

기타 호칭어는 박갑수(1989)에서도 설정하고 있는데 기타는 화자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이다. 그런데 기타 호칭어는 '여보세요'나 그것의 변이형인 '여보(시)계, 이봐요'와 '야' 등이 있다. 이런 호칭어의 일차적인 기능은 대화 상대자의 주의를 화자 쪽으로 환기시키는 것이다. '여보세요' 종류는 나타날 수 있는 위치의 제약 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호칭어들과 다르다. 다른 호칭어들은 문장의 여러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여보세요' 종류는 문두에서만 나타난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하 관계나 친소 관계를 나타내 주는 기능으로 사용된다.

'저기요'와 '여기요'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지 않고 장소를 나타내는 '저기'나 '여기'에 '요'를 붙여 부르는 형태이다. 이러한 처소 지칭형 호칭어 '저기요', '여기요'는 낮선 관계에서 [-친밀]의 자질로 쓰이는 경우가 보통이다¹⁵⁾.

제 2 절 태국어 호칭어

태국에서는 호칭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태국어 호칭어와 다른 언어의 호칭어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 Sodsongkrit M.(2006) 의 'The

15) 강주영(2009), '방송언어의 호칭어 사용 양상 연구', p35

use of address in modern Thai and Chinese language: A comparative study'는 태국어 호칭어 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태국어 호칭은 '①이름 호칭어 유형 ②성 호칭어 유형 ③친족 호칭어 유형 ④직함 호칭어 유형 ⑤감탄사 호칭어 유형 ⑥성별 호칭어 유형 ⑦감상 호칭어 유형 ⑧연세 호칭어 유형 ⑨교육 호칭어 유형 ⑩직위 호칭어 유형 ⑪통칭적 호칭어 유형 ⑫별명 호칭어 유형 ⑬신분 호칭어 유형'의 13가지로 나누어진다. Rodtrap N.(2007)에서는 '①이름 호칭어 유형, ②친족 호칭어 유형, ③직함 호칭어 유형, ④직위 호칭어 유형, ⑤별명 호칭어 유형, ⑥대명사 호칭어 유형, ⑦감상 호칭어 유형'으로 나누었다.

태국어 호칭어 유형을 앞서 살핀 한국어 호칭어 유형에 따라 5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함 호칭어와 직위 호칭어는 한 데 묶어서 정리하여도 무리가 없다. 또한 태국과 한국은 사회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일상생활에서 제일 복잡하게 사용하는 호칭어는 '이름 호칭어,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별명 호칭어'이기 때문이다.

1. 이름 호칭어

[표 3 - 8] 태국어 이름 호칭어

태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성명의 구성은 이름이 앞에, 성은 뒤에서 나타나는 순서다. 예를 들어 Pawana Petprai는 Pawana가 이름이고 Petprai는 성이다.

- (29) ㄱ. 남성 아기 : เด็กชายสมชาย ใจมั่นคง
[dek ʃa:j]Somchai Jaimankog
ㄴ. 여성 아기 : เด็กหญิงสุภาพร รักไทย
[dek jʰɪn]Supaporn Rakthai

태국에서 이름을 부를 때는 성별에 따라 부르는 방식이 다르다. (29ㄱ, ㄴ)과 같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성별을 알게 되면 여성 아기는 의존명사 ‘เด็กหญิง[dek jʰɪn]+성’으로 부르고, 남성 아기는 의존명사 ‘เด็กชาย[dek ʃa:j]+성’으로 부른다.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만 사용한다. 태국 법률에 따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5일까지는 이름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15일 동안에 부모와 친척들은 복된 이름을 짓고 군청에 의존명사 ‘เด็กหญิง[dek jʰɪn]’이나 의존명사 ‘เด็กชาย[dek ʃa:j]이름+성’을 신청하게 되며 그 때부터는 성만 부르는 경우가 없다.

- (30) ㄱ. 남성아기 : เด็กชายสมชาย ใจมั่นคง → นายสมชาย ใจมั่นคง
[dek ʃa:j]Somchai Jaimankog →
[na:j]Somchai Jaimankog
ㄴ. 여성아기 : เด็กหญิงสุภาพร รักไทย → นางสาวสุภาพร รักไทย
[dek jʰɪn]Supaporn Rakthai →
[na:ɲ sa:w]Supaporn Rakthai

태국 법률에 따라 아이가 15살이 되면 (30ㄱ, ㄴ)과 같이 다시 군청에 여자는 의존명사 ‘เด็กหญิง[dek jʰɪn]’을 의존명사 ‘นางสาว[na:ɲ sa:w]’으로, 남자는 의존명사 ‘เด็กชาย[dek ʃa:j]’를 의존명사 ‘นาย[na:j]’로 바꾸고 신분증 카드를 만들게 된다.

- (31) ㄱ. 신랑 : นายสมชาย ใจมั่นคง

[na:j]Somchai Jaimankog

ㄴ. 신부 : นางสาวสุภาพร รกไท → นางสาวสุภาพร ใจมงคล

[na:n sa:w]Supaporn Rakthai →

[na:n]Supaporn Jaimankog

(31ㄴ)과 같이 예전에는 태국 법률에 따라 태국 여자는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의존명사 ‘นางสาว[na:n sa:w]’은 의존명사 ‘นาง[na:n]’으로 바뀌야 한다. 그런데 1997년에 새로 개정된 태국 법률에 따르면 여자가 결혼했을 때도 원래 자기의 가지고 의존명사 ‘นางสาว[na:n sa:w]’을 계속 사용하여도 되고 남편의 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자기 성과 남편의 성을 같이 이름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3ㄱ)과 같이 태국 남자들은 결혼을 해도 호칭의 어떤 의존명사는 바뀌지 않는다.

쁘라주업(2005)에 따르면 ‘คุณ[kʰɔn]+이름+성’은 청자 또는 객체(3인칭)를 공손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공식적·비공식적인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는 청자의 지위가 화자보다 낮을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화자가 청자를 존대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32) ㄱ. คุณ[kʰɔn] : คุณวิภาวี ! เตรียมเอกสารการประชุมเสร็จยัง

[kʰɔn]+Wipawee ! 회의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คุณพ่อ ! ตอนเย็นเราเจอกันที่บ้านนะคะ

[kʰɔn]+[pô:] ! 저녁에 집에서 만나자고요.

ㄴ. ท่าน[tʰān] : ท่านสมศักดิ์ครับ ! ขอเรียนเชิญกล่าวเปิดการประชุมครับ¹⁶⁾

[tʰān]+Somsak+kʰab ! 회의를 시작하십시오.

ㄷ. ไอ้[ʔa:j] : ไอ้บอย ! เอาเงินมาป่าว

[ʔa:j]+Boy! 돈을 가져왔어?

ㄹ. อี[ʔi:] : อีหนู ! กินข้าวหรือยัง

[ʔi:] + Nou ! 밥을 먹었어?

16) 태국어에서 남성과 여성은 말을 끝맺을 때 정중한 표현을 다르게 사용한다. 남성은 ‘ครับ [kʰab]’, 여성은 ‘ค่ะ / ค่ะ [kʰa:]’를 사용한다.

- อึ้น ! ออกไปนะ
[ʔi:] + Bar ! 나가 !
- 口. หง[nan] : หงน้ำ ! ออกไปนะ
[nan] + Bar ! 나가 !
- 日. 단독 : ประการตน์ ! พรุ่งนี้เจอกันที่เมียงดงนะ
Prapat ! 내일 명동에서 만나자.
- 人. 별명 : จุน ! เห็นกระเป๋าที่วางอยู่บนโต๊ะมัย
June ! 책상 위에 놓여있는 가방을 봤어 ?
หนึ่ง ! ล้างมือด้วย
Nung ! 손을 씻어라 !

의존명사를 친족 호칭어 앞에 붙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32ㄱ)과 같이 ‘คุณ[khun]’를 친족 호칭어 ‘พ่อ[pə:], แม่[mæ:], ย่า[jā:], ตา[ta:], ยาย[ja:], ชาวหรือทวด[ʃəd] or [dʌd], พี่[pʰi:], น้อง[nʷ:n],ลุง[lon], ป้า[pʰa:], น้า[nʰa:], อา[ʔa:], ลูก[lu:k], หลาน[ha:n], เหลน[le:n], และโหลน[lo:n]’에 붙이면 더 높이는 뜻의 친족 호칭어가 된다.

왕립 아카데미 사전에 따르면 ‘ท่าน[thān]’은 청자가 높여 부른다. 또한 화자의 사회적 신분 및 연령이 청자 또는 객체보다 낮은 경우에 사용된다. 의존명사 ‘ท่าน[thān]’은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32ㄷ)의 의존명사 ‘ไอ[ʔa:j]’는 왕립 아카데미 사전에 따르면 친근한 남성 사이에서 사용한다.

(32ㄷ)의존명사 ‘อี[ʔi:]’는 여성 사이에서 나이가 어린 청자의 이름에 붙여 쓴다. (32口)의 의존명사 ‘หง[nan]’도 여성 사이에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ไอ[ʔa:j], อี[ʔi:], หง[nan]+이름’ 형태는 현대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 호칭어는 전통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던 호칭어 유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용한다. ‘폐렴감행대왕’¹⁷⁾ 시대에 태국 사람은 화자와 청자 사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남

17) Pho Khun Ram Khamhaeng(1237/1247~1298) 대왕은 태국 수코타이의 왕조의 3대왕으로서 태국의 문자를 제정하고 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너 청자를 부르는 말로 사용하였다. 현재에는 의존명사 ‘ $\text{d}[\text{?a:j}]$, $\text{d}[\text{?i:}]$, $\text{w}[\text{nAn}]$ +이름’의 형식이나 ‘ $\text{d}[\text{?a:j}]$, $\text{d}[\text{?i:}]$, $\text{w}[\text{nAn}]$ +별명’은 화자와 청자가 친근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상대방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다툼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름이 호칭어로 쓰이는 호칭 유형으로는 ‘이름’과 ‘이름+성’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34b)과 같이 ‘이름’이 단독으로 쓰이는 형태는 좀처럼 드물고, 쓰인다면 아이들을 꾸짖을 때와 거리감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반면에 ‘이름+성’ 유형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태국어 이름 호칭어 유형으로 별명 호칭어 유형도 있다. 별명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태국 사람들은 청자를 부를 때 이름을 많이 부를 뿐만 아니라 별명을 이름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태국사람은 태어났을 때 아직 이름이 없어도 되는데 별명은 꼭 지어서 사용해야 한다. (34c)에서 보통 별명을 지을 때 부모가 좋아하는 것으로 직접 지을 수 있다. 현대 태국어 별명 호칭어는 영어 바람으로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별명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친근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2. 친족 호칭어

Cherdchai(2011:13)에서 태국 친족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17가지 어휘로 이루어지는데, ‘พ่อ[pô:], แม่[m^æ],ลุง[lɔŋ], ป้า[pû:], ยาย[jâ:], ตา[ta:], ยาย[ja:j], ขวดหรือ ทวด[ʃvəd] or [ðvəd], พี่[p^i:], น้อง[n^ɔ:n], น้ำ[n^a:], อา[?a:], ลูก[lu:k], หลาน[lh̃a:n], เหลน[lh̃eɪn], และโหล่น[lh̃oɔn]’와 같은 호칭들은 상황 요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상황 요소는 다음과 같다.

<호칭 사용에 영향을 주는 상황 요소>

- ① 세대(generation):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와 아이 등
- ② 혈연(blood relation): 아버지와 삼촌, 어머니와 외삼촌 등
- ③ 성별(sex): 남성이나 여성 즉, 큰아버지와 아주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등
- ④ 나이(age): 오빠, 동생 등

⑤ 부모의 관계(parental link): 부모의 친족들 즉, 삼촌과 외삼촌 등

태국 사회는 가족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가족 형태의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 때문에 가족에 대한 호칭어의 형태가 사회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태국의 가족에 대한 호칭어를 통하여 전통 사회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존경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태국어의 친족 관계를 가리키는 만들어진 거의 일반적 대인관계에서 호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나이를 고려하고 성별까지 살펴서 무조건 친족호칭어로 사용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친족 호칭어나 이름, 2인칭 대명사 호칭어를 사용한다.

1) 부모와 자녀에 대한 호칭어

[표 3 - 9] 태국어 부모와 자녀에 대한 호칭어

부모		자녀
아버지	어머니	
‘พ่อ[pô:]’, ‘คุณพ่อ[khôn pô:]’	‘แม่[mæ]’, ‘คุณแม่[khôn mæ]’	‘ลูก[lu:k]’, ‘별명’, ‘이름’

(33) ㄱ. 딸 : พ่อ ! กลับมาถึงตอนกี่โมงคะ
[pô:] !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

아버지 : มาถึงตอนสองทุ่ม ไก่กลับมาถึงตอนกี่โมง
8 시에 도착했어. Gai!(별명)몇 시에 왔어 ?

ㄴ. 아들 : คุณแม่ ! พรุ่งนี้ถ้ามีเวลาเราไปห้างสรรพสินค้ากันนะ
[khôn mæ] ! 내일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백화점에
같이 가시지요.

어머니 : สุรศักดิ์ ! จะไปซื้ออะไรละ
Surasak ! 뭘 사려고 해 ?

친족 청자에게 사용하며 일반적이며 친근한 뜻을 가진 기본형인 ‘พ่อ[pô:]’, ‘แม่[mæ:]’ 형태가 있고, 높임은 ‘คุณพ่อ[khôn pô:]’, ‘คุณแม่[khôn mæ:]’의 형태가 있다.

가족마다 가족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35ㄱ)과 같이 가족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 ‘พ่อ[pô:]’, ‘แม่[mæ:]’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한다.

(33ㄱ)과 (33ㄴ)에서 자녀에 대한 호칭어 예가 보이는데, 보통 태국사람은 ‘ลูก[lu:k]’를 부르거나 ‘별명’이나 ‘이름’호칭어를 부른다. 미혼 자녀이거나 결혼한 자녀이거나 관계없이 태국에서는 별명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친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어

[표 3-10] 태국어 친동기의 호칭어

พี่[pʰi:], พี่[pʰi:]+별명, พี่[pʰi:]+이름	พี่[pʰi:], พี่[pʰi:]+별명, พี่[pʰi:]+이름	‘น้อง[nʰw:ŋ]’, 별명, 이름	‘น้อง[nʰw:ŋ]’, 별명, 이름
---	---	--------------------------	--------------------------

(34) ㄱ. 여동생 : พี่ ! ขออภัยจนานุกรมหน่อย
[pʰi:] ! 사전을 좀 빌려주세요.

언니 : อืมเอาไปสิ ต่าย ! หยิบสมุดให้พี่ด้วย
응 가져가. Tai(별명) ! 내 공책 좀 줘.

ㄴ. 남동생 : พี่หน ! ไปเล่นบาสกันน้ย
[pʰi:]+별명 ! 농구를 같이 가자.

형 : เทียน ! เอาลูกบาสมาด้วยนะ
Taen ! (별명)농구공도 가져와라.

태국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친동기를 부를 때 ‘พี่[pʰi:]’, ‘พี่[pʰi:]+별명’, ‘พี่[pʰi:]+이름’을 사용한다. (34ㄱ, ㄴ)에서 태국 사회에서 같은 부모에서 태

어난 아이가 ‘พ่[phǐ:], พ่[phǐ:] + 별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친동기를 부를 때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으며, 오빠나 형의 아내와 누나와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도 자기 가족처럼 사용하는 호칭어로 부른다.

태국에서 동생을 부르는 경우는 ‘น้อง[nʰɔːn]’ 별명이나 이름’을 부른다. 마찬가지로 동생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자기 동생처럼 생각하고 부른다. 그리고 위에서는 ‘พี่[phǐ:] + 이름’은 직장에서나 학교 선후배 사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일반인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다. 남녀들은 ‘พี่[phǐ:], น้อง[nʰɔːn]’만 사용하거나 ‘พี่[phǐ:], น้อง[nʰɔːn] + 별명’을 붙여 부른다.

3) 처부모와 사위에 대한 호칭어

[표 3-11] 태국어 처부모와 사위에 대한 호칭어

처부모		사위
장인	장모	
‘พ่อ[pʰɔː:]’, ‘คุณพ่อ[khun pʰɔː:]’	‘แม่[mʰæ:]’, ‘คุณแม่[khun mʰæ:]’	‘ลูก[lu:k]’, ‘별명’, ‘이름’

(35) ㄱ. 사위 : คุณแม่ ! จะไปไหนครับ
[khun mʰæ] ! 어디에 가세요?

장모 : นู๋ ! จะไปไหน
이름 ! 니가 어디 가니?

태국에서는 아내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용하는 동일한 형태로 부른다. (35ㄱ, ㄴ)에서는 장모와 사위에 대한 호칭어 예를 보이고 있다. 부모에 대한 호칭어는 보통과 친근 기본형으로 장인에 호칭어는 ‘พ่อ[pʰɔː:]’, 장모에 대한 호칭어는 ‘แม่[mʰæ:]’ 형태를 사용하고, 높임 유형은 ‘คุณพ่อ[khun pʰɔː:]’, ‘คุณแม่[khun mʰæ:]’의 형태를 사용한다. 태국에

서는 사위도 친자식처럼 생각한다. 사위에게 일반적으로 ‘*ʃu*[lu:k]’를 사용하거나, ‘별명’ 또는 ‘이름’만 부르는 처부모도 있다.

4) 시부모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

[표 3-12] 태국어 시부모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

처부모		며느리
시아버지	시아머니	
‘พ่อ[pô:]’, ‘คุณพ่อ[kʰon pô:]’	‘แม่[m̂æ]’, ‘คุณแม่ [kʰon m̂æ]’	‘ลูก[lu:k]’ ‘별명’, ‘이름’

- (36) ㄱ. 며느리 : คุณพ่อ ! ทานข้าวคะ
 [kʰon pɕ:] ! 식사하세요.

시아미지 : ลูกกินไปก่อน พ่อยังไม่หิว
[lu:k] 먼저 먹어. 나는 배 고프지 않아.

태국에서 시부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기 때문에 (367)과 같이 친 딸을 부르듯이 며느리를 부를 때 ‘*ŋ[lu:k]*’을 사용하거나, ‘별명’ 또는 ‘이름’을 사용한다. 며느리도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여긴다. 이러한 마음은 호칭어에도 나타나서 시부모를 친근하게 ‘*พ่อ[pô:]*’, ‘*แม่[m^æ]*’ 형태로 부르거나, 높임의 형태로 ‘*คุณพ่อ[khôn pô:]*’, ‘*คุณแม่[khôn m^æ]*’를 사용한다.

5) 부부에 대한 호칭어

[표 3-13] 태국어 부부에 대한 호칭어

남편	아내
ตัวเอง[tʰəɔ̌ ʔen], พี่[pʰi:], ชื่อ[ชื้อม], พี่ภรรยา[tʰi: rak], เตะ[tʰɜ:],	‘พี่ภรรยา[tʰi: rak]’, เมียจ๋า[mɪə dʒa:], ตัวเอง[tʰəɔ̌ ʔen], น้อง[nʰɔ̌:ŋ],

คุณ[khɔn], พ่อ[pô:], ตา[ta:], ปู่[pû:]	ชื่อ[이름], เธอ[thɔ:], คุณ[khɔn], แม่[mʰæ], ยาย[ja:j], ย่า[jâ:]
--	--

(37) ㄱ. 남편 : พี่[thʰi: rak]! อยู่ทำอะไร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아내 : พี่[pʰi:]! อยู่ในลิ้นชัก ลองดูสิ
오빠! 서랍 안에 있잖아. 잘 봐.

태국에서 부부 호칭어는 남편은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는 (37ㄱ)의 ‘พี่[thʰi: rak]’, แม่[maː dʒa:], ตนเอง[thɔə ʔen], น้อง[nʰɔ:n], ชื่อ[이름], เธอ [thɔ:], คุณ[khɔn], แม่[mʰæ], ยาย[ja:j], ย่า[jâ:]’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태국에서는 아내를 가리킬 때 대부분 낮춰 부르지 않고 높여 부른다. 아내는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 ตนเอง[thɔə ʔen], (37 ㄱ) พี่[pʰi:], ชื่อ[이름], พี่[thʰi: rak], เธอ[thɔ:], คุณ[khɔn], พ่อ[pô:], ตา[ta:], ปู่[pû:]로 부른다.

6)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

태국에서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친족호칭어를 많이 사용한다.¹⁸⁾ 태국 사회에서 친족은 존경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친족과 같이 존경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나이, 성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를 때 상대방의 나이, 성별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친족 호칭어를 선택한다. 보통 상대방에 대한 친족 호칭어 ตา[ta:], ยาย[ja:j],ลุง[lɔn], ป้า[pʰa:], น้า[nʰa:], พ่อ[pô:], แม่[mʰæ], พี่[pʰi:], น้อง[nʰɔ:n] 등이 있다.

18) 뿌라주업(2005:12)에 따르면 대화에서 친족 호칭어는 반드시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 (38) ㄱ. ลูกครับ ! จะซื้อรถคนไหนหรือครับ
 아저씨 ! 이 차를 사시겠습니까 ?
- ㄴ. คุณตาครับ ! ผมไปส่งที่บ้านนะครับ
 외할아버지 ! 집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 ㄷ. ป้าคะ ! เก็บเงินคะ
 아줌마 ! 계산해 주세요.
- ㄹ. น้อง ! ช่วยยกของหน่อย
 동생 ! 이 거 좀 도와 줘.

คุณ[kʰɔn] + ลุง[lɔn], ป้า[pʰa:]를 사용하는 경우는 40대나 50대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이다. (38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친구의 아버지는 ลุง[lɔn]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38ㄷ)에서처럼 어머니의 동년배나 친구의 어머니, 윗사람의 아내 등에 대해 ป้า[pʰa:]라고 부른다.

태국에서는 화자가 성인인 경우 친구의 부모를 보통 ‘พ่อ[pô:]’, ‘แม่[mʰæ]’ 형태로 부르는데, ‘คุณพ่อ[kʰɔn pô:]’, ‘คุณแม่[kʰɔn mʰæ]’라는 높임 유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พี่[pʰi:], น้อง[nʰɔ:n]은 직장에서나 학교 선후배 사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일반인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다. (38ㄹ)에서처럼 남녀들은 ‘พี่[pʰi:], น้อง[nʰɔ:n]’만 사용하거나 ‘พี่[pʰi:], น้อง[nʰɔ:n]+별명’으로 붙여 부른다.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친족 호칭어 앞에 그 사람의 이름 호칭어를 붙고 예를 들어 ‘이름+친족어’ 유형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พี่[pʰi:]+마니’, ‘น้อง[nʰɔ:n]+성희’ 등이 있다.

친족이 아닌 상대방을 친족 호칭어로 부르면 상대방하고 친분이 있거나 더 친해지려고 사용하는 호칭인데 성까지 붙여 부르면 다소 소원한 느낌이 있다. ‘พี่[pʰi:], ‘พี่[pʰi:]’+별명’의 친족 호칭어는 연인 사이에서 여자가 남자 친구를 부르는 때에 자주 사용한다. ‘น้อง[nʰɔ:n]’, ‘น้อง[nʰɔ:n]+별명’ 호칭어도 연인인 남자가 여자 친구를 부를 때 쓴다.

‘คุณ[khɔn] + ตา[ta:], ยาย[ja:j]’는 태국에서 보편적으로 화자가 자기 나이를 기준을 판단하여 상대방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에 맞게 사용하는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이다. (38ㄴ)과 같이 나이가 60대 이상인 노인들은 ‘[ตา[ta:], ยาย[ja:j]’로 부른다. 그리고 노인들이 서로 ‘ตา[ta:], ยาย[ja:j]’라고 부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คุณ[khɔn] + แม่[n^a:]’의 태국어 호칭어는 어머니의 여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친족 호칭어이다. ‘แม่[n^a:]’는 여성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부른다. 어머니보다 แม่[n^a:]에게 더 친근함을 느끼고 부담이 없는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태국 생활에서 가족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착하고, 예쁘고, 온화한 느낌의 어머니의 자매를 แม่[n^a:]’라고 부른다.

이상에서 살펴 본 태국어 친족 호칭어는 세대, 혈연, 나이, 성별, 부모 등의 관계에 따라 나뉜다. 태국 친족 호칭어는 한국어에 비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부모와 며느리 호칭어를 부를 때 자기 부모 호칭어와 자녀 호칭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개별 가족에 따라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하다. 어떤 가족은 높임말을 사용하는데 낮춤말을 사용하는 가족도 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낮춤말로 사용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에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낮춤말을 사용하면 높임말을 사용할 때보다 더 친근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3. 직함 호칭어

[표 3-14] 태국어 직함 호칭어

직함	คุณบดี[학장님], ผู้อำนวยการ[장관]
직함+이름	เลขาชีวิตจันทร์[Chid-jun비서], อาจารย์กนกกรณ์[Ka-nok-kron 선생님], นายแพทย์ประคอง[Pra-kong 의사 선생님]
직함+이름+ 성	รองผู้จัดการอำนาจ สอนดี[Aomnat Sondée 부사장], เลขาสมัครี แจ่มรุก[Soomsri Jangruk 비서]
くん +이름+직함	คุณประสาน ผู้ช่วยฝ่ายการตลาด[Prasan+씨+ 조수 마케팅 관리자]

위에서 보듯이 태국 직함 호칭어는 다양하지 않지만 사용 방식은 조금 복잡하다. 직함 호칭어는 보통 직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 보통 직장에서는 윗사람을 부를 때 직함을 꼭 사용하여야 한다. ‘직함+이름, 직함+이름+성, 쿤+이름+직함’이나 ‘직함’만으로도 부를 수 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부를 때 ‘직함+이름, 직함+이름+성, 쿤+이름+직함, 직함’을 부르거나 ‘친족 호칭어+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의 심리는 친근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늘 최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태국어 직함 호칭어는 발달되지 않았고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직장 분위기를 가족 분위기처럼 만들기 위해서나 친한 상황일 경우에는 친족 호칭어를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족 호칭어는 모두 사용하지 않고 청자의 나이에 따라 사용한다. 즉 청자가 나이가 많으면 ‘친족 호칭어[พี่[pʰiː]](언니/오빠)+이름’으로 부른다.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더 적으면 ‘친족호칭어[น้อง[nɔ̌ːŋ]](동생)+이름’으로 부른다.

태국어 직함 호칭어는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남성만 또는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남성 의사선생님을 부를 때

‘นายแพทย์สมชาย ใจดี [naːj pʰæd Somchai Jaidee] 솜차이 짜이디 의사선생님’으로 사용하고, 여성 의사선생님을 부를 때는 ‘แพทย์หญิงพรทิพย์ มีระ [pʰæd jʰɪn Porntip Merak] 폰티프 미락 의사선생님’으로 부르며, ‘직함+이름+성’의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고위 공직자(예를 들어 Abhisit Vetjajiva 태국의 총)에 대해서는 최상의 높임말과 ‘직함+이름+성’을 꼭 사용해야 한다.

4. 대명사 호칭어

1) 2인칭 대명사

[표 3-15] 태국어 2인칭 대명사 호칭어

수	보통	높임	낮춤
단수	เธอ[thɔ:](당신)	ท่าน[thʰan] 'คุณ[khɔn] 선생(님)	แก[kæ] 너 มีง[məŋ]
복수	พวก [pʰɔək] + 단수		

태국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인 인칭 대명사가 문장에서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와 비슷하다. 특히 태국어는 존대말 체계가 분명한 언어이므로 인칭 대명사에도 그 자체에 높임과 낮춤이 나타난다.

인칭 대명사 'ท่าน[thʰan], เธอ[thɔ:], แก[kæ], มีง[məŋ]'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지 않고 사용하며, 'แก[kæ](너)', 'มีง[məŋ]'은 어렸을 때나 학창시절에 맺은 친한 친분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เธอ[thɔ:]는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남정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ท่าน[thʰan], คุณ[khɔn]는 화자가 청자를 높여 부르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39) 'แก[kæ] (너)', 'มีง[məŋ]'의 사용

ㄱ. 가족, 친인척에 관계

부모 → 아기

(사촌)형, 누나, 오빠, 언니 → 남, 여, 동생

ㄴ. 친구 관계

친구 → 친구

형 친구 → 친구 동생

‘[thɔ:](당신)’은 일반적으로 어린 청자에게 사용하거나, 어렸을 때나 학창시절에 맺은 친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는 친구나 아래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

(40) ‘[thɔ:](당신)’의 사용

ㄱ.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인 성인 → 나이가 더 적은 남성인 성인

장인 → 사위 (예비 장인 → 예비 사위)

스승 → 장성한 제자, 교수 → 학생, 조교

선배 → 후배

동네 사람 → 동네 사람 (어른 → 젊은이, 형님 → 아우)

아버지 친구 → 친구 아들

손위 처남 → 매부 (매부 → 손아래 처남)

ㄴ.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인 성인 → 나이가 더 적은 여성인 성인

스승 → 장성한 제자

교수 → 학생, 조교

ㄷ. 나이가 더 많은 여성인 성인 → 나이가 더 적은 여성인 성인

언니 → 여동생

손위시누이 → 손아래 올케

윗동서 → 아랫동서

시이모, 고모 → 조카며느리

동네 사람 → 동네 사람 (어른 → 젊은이)

ㄹ. 나이가 더 많은 여성인 성인 → 나이가 더 적은 남성인 성인

장모 → 사위

누나 → 남동생

어머니 → 아들

직장 상사 → 부하 직원

‘กณ[khɔn]’은 성인인 청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직함 호칭어로 부를 수 있는 사람보다는 좀 가깝고, 이름호칭어로 부를 만큼은 가깝지 않은 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41) ‘กณ[khɔn]’의 사용

ㄱ. 나이가 적은 남성인 성인 →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인 성인

장성한 제자 → 스승

부하 직원 → 직장 상사

매부 → 손위 처남

ㄴ. 모르는 관계

กณ[khɔn]

‘กณ[thʰan]’은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고, 직위가 높은 사람만 부를 수 있다.

(42) ‘กณ[thʰan]’의 사용

ㄱ. 부하 직원 → 직장 상사

태국어 2인칭 복수 대명사는 의존명사 ‘wan [pʰɔək]’를 단수 2인칭 대명사에 붙이면 되는데 청자가 화자보다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5. 기타 호칭어

태국어 기타 호칭어로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사용하는 감상 호칭어 ‘ก[thʰi: rak], สดก[soɔd thʰi: rak]’은 ‘허니/달링, 사랑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랑 표현의 어휘나 구문으로 호칭을 하지는 않는다.

제 3 절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비교

한국과 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호칭어의 형태가 많고 복잡하다. 그런데 한국 친족 호칭어와 태국어 친족 호칭어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위에서는 한국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를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한·태 이름 호칭어

이름이 호칭어로 쓰이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인 듯하지만 호칭어로서의 이름의 사용 방법에 따른 제약이나 세부적 특징은 언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로 사용되는 이름 호칭어 유형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한·태 이름 호칭어의 공통점

한국어와 태국어 이름 호칭어는 낮춤법, 높임법, 단독 이름 호칭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의존명사 ‘씨’나 접미사 ‘-님’을 이름에 붙이면 청자를 높이는 것이다. 태국에서는 의존명사 ‘คุณ[khun]’과 ‘ท่าน[th’an]’을 이름 앞에 붙이면 청자를 존대하여 부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름에 호격조사 ‘-아/야/이’를 붙이면 화자와 청자가 사이가 가깝고 친한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태국어도 의존명사 ‘พ่อ[pa:j,]/แม่[mai]/น้อง[nan]’를 이름 앞에 붙이면 상대방과 가깝고 친근함을 표현한다.

두 언어에는 별명 호칭어가 있다. 별명은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한다. 별명들은 ‘이름’ 호칭어와 같이 친근감을 나타내 주로 호격조사가 붙어 사용된다. 한국어는 ‘-아/야’를 사용하고, 태국어는 ‘พ่อ[pa:j,]/แม่[mai]/น้อง[nan]’를 붙여 사용한다. 태국 별명 호칭어는 두 번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은 친밀감 사이에서 이름이나 성을 많이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른다. 태국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름이 아직 없어도 되지만 별명을 꼭 지어야 한다. 보통 별명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으로 짓는다.

2) 한·태 이름 호칭어의 차이점

태국어 성명은 이름이 앞에, 성이 뒤에 위치하는데, 한국어 성명은 성이 앞에 붙이고 이름이 뒤에 나타난다. 태국어는 ‘이름+성’ 즉, ‘Pawana Petprai’, 한국어는 ‘성+이름’ 즉, ‘김철수’의 형태이다. 태국어는 이름을 부를 때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만 한국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성만을 사용하여 부르는 형태가 여럿 있다. ‘성+씨/군/양/선생님’ 이나 ‘미스터/미스+성’의 형태로 ‘김 씨, 이 선생, 박 양, 강 군, 미스터 김, 미스 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성만 부르는 형태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일정 기간에만 부를 수 있다. 부모가 군청에서 아이 이름을 신청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성만 부르는 상황이 없다.

태국 법률에 따라 아이가 15살이 되면 군청에서 이름 호격조사를 바꿔야 하며, 신분증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 나이가 18살 때 신분증을 만든다.

예전에 태국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이름 호칭어도 남편의 성에 따라 바뀌어야 했다. 그런데 1997년에 개정된 태국법률에 따라 요즘은 태국 여자가 결혼해도 의존 명사 นางสาว [na:n sa:w]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성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는 자신의 성과 남편의 성을 모두 이름에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남자는 결혼을 하여도 이름에 변화가 없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해도 여자나 남자 모두 성을 바꾸지 않는다.

한국어의 호격조사나 의존명사는 ‘성+이름’이나 ‘이름’의 뒤에 붙여 호칭어를 형성하는데, 태국어의 호격조사는 ‘이름 +성’ 앞에 붙여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의 외래어 이름 호칭어는 ‘미스터(Mr.)/미스(Miss)+성’은 외국 기업에서 사장이나 동료가 부를 수 있지만 태국에서 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

한국에서는 별명 호칭어 가운데 청자의 출신지역명을 이용한 별명 호칭어가 있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온 비전문적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 청자를 '수원댁'으로 부를 수 있다. 태국에서 이러한 호칭어 유형은 없다.

2. 한·태 친족 호칭어

1) 한·태 친족 호칭어의 공통점

한국에서는 친족 부모에게 사용하며 보통 기본형인 '아버지', '어머니' 형태가 있고, 높임형은 '아버님', '어머님'의 형태, 친근형으로 '엄마', '아빠'를 사용한다. 태국에서는 부모에게 사용하는 호칭어는 친근형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พ่อ[pô:]', แม่[mæ:]의 형태를 사용한다. 높임형은 'คุณพ่อ[khôn pô:]', 'คุณแม่[khôn mæ:]'이다.

태국과 한국의 친족 호칭어는 성별에 따른 차별화 현상이 존재한다. 양국에서 친족 호칭어는 부계, 모계, 부부계의 세 범주로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서 친족명칭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부부 사이 호칭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는 '여보', '자기', '아빠', '이름+씨', '이름+야', '자기야', '당신', '이봐요', '아저씨', '오빠', '형', '성+선생', '너', '남편', '미스터+성', '임자', '영감' 등이 있고, 아내를 부를 때는 '너', '이봐', '마누라', '할멈'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태국에서도 부부 호칭어는 남편을 부를 때 พ่อ[thōə ?en], พี่[pʰi:], ชื่อ[이름], พี่[thʰi: rak], เธอ[thɔ:], คุณ[khôn] 등을 사용한다. 아내에 대해서는 แม่[miə dʒa:], พ่อ[thōə ?en], น้อง[nʰō:ŋ], ชื่อ[이름] พี่[thʰi: rak], เธอ[thɔ:], คุณ[khôn]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부부 호칭어는 결혼 생활의 시간 변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3-16] 한·태 시간에 따라 부부 호칭어 비교

호칭어	신혼 초	아이가 있을 때	노년
-----	------	----------	----

국가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한국	여보, 이름+씨, (여봐요)	이름+아 이, 이름+씨, 여보, 야, 이봐	여보, 이름+아 버지, 이름+아 빠	여보, 이름+엄 마, 이름+아 /야 (아이이름) , 마누라, 임자, 부인, 애기 엄마	여보, 영감, 할아버지, 아버지	여보, 임자, 마누라, 할머니 애기 엄마
태국	ตัวเอง [tʰɔə ʔen] พี่[pʰi:] ชื่อ[이름] ที่รัก [tʰi: rak] เธอ[tʰɔ:] คุณ[kʰɔn]	เมียจ๋า [miə dʒa:] ตัวเอง [tʰɔə ʔen]นี่ เอง [nʰɔ:n] ชื่อ[이름] ที่รัก [tʰi: rak] ที่รัก [tʰi: rak] เธอ[tʰɔ:] คุณ[kʰɔn]	ตัวเอง [tʰɔə ʔen] พี่[pʰi:] ชื่อ[이름] ที่รัก [tʰi: rak] เธอ[tʰɔ:] คุณ[kʰɔn]	เมียจ๋า [miə dʒa:] ตัวเอง [tʰɔə ʔen] น้อง [nʰɔ:n] ชื่อ[이름] ที่รัก [tʰi: rak] ที่รัก [tʰi: rak] เธอ[tʰɔ:], คุณ[kʰɔn]	ตัวเอง [tʰɔə ʔen] พี่[pʰi:] ชื่อ[이름] ที่รัก [tʰi: rak], เธอ[tʰɔ:] คุณ[kʰɔn] พ่อ[pɔ:] ตา[ta:], ปู่[pû:]	เมียจ๋า [miə dʒa:], ชื่อ[이름] เธอ[tʰɔ:] คุณ[kʰɔn] แม่[mʰæ] ยาย[ja:j] ย่า[jâ:]

위의 표를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을 결혼 전 애인 관계에서 사용하던 호칭어와 비슷한 호칭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이름+씨’와 태국어도 ‘ตัวเอง[tʰɔə ʔen]’, ‘พี่[pʰi:]’, ‘ชื่อ[이름]’, ‘ที่รัก[tʰi: rak]’, ‘เธอ[tʰɔ:]’, ‘คุณ[kʰɔn]’가 그 예이다. 아이가 생긴 다음에 ‘이름+아버지’, ‘애기 아빠, 여보, 아이 이름 엄마, 이름+야, 아이 이름, 마누라, 임자, 부인, 애기 엄마’의 호칭어를 사용한다. 태국어도 마찬가지로 ‘พ่อ[pɔ:]’, ‘แม่[mʰæ]’ 호칭어를 사용하게 된다. 노인이 되면 한국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용하게 되고 태국어는 ‘พ่อ[pɔ:]’, ‘ตา[ta:]’, ‘ปู่[pû:]’, ‘ยาย[ja:j]’, ‘ย่า[jâ:]’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는 양국에서 모두 사용한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친족이 아닌데도 친족 호칭어를 많이 사용한다. 상대방의 나이나 성별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를 선택한다. 한국어의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는 ‘아줌마(아주머니)’, ‘아저씨’, ‘이모’, ‘언니’, ‘누나’, ‘형’,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이 있다. 태국어 호칭어도 마찬가지로 ‘m[ta:], en[ja:j], n[lon], n[p^a:], n[n^a:], p[p^:], m[m^æ], p[p^:], n[n^o:n]’ 등이 있다. 특히 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 친척 중심으로 촌락을 구성하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가족 중심주의 사고방식이 강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가족처럼 여기며 일반인에 대한 호칭도 친족어를 범용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한·태 친족 호칭어의 차이점

한국에서 부모에 대한 호칭어는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나이가 어릴 때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국에서는 한국과 다르다. 어렸을 때 부모를 부르는 방식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호칭어는 자녀가 미혼일 경우에는 보통 ‘이름+아/야’를 이름으로 부르고 성인 자녀에 대한 호칭어는 자녀가 결혼하여 아이가 생기기 전과 생긴 뒤가 다르다. 아이가 생긴 후에 경우는 ‘이름+아범(아비), 이름+어멈(어미)’로 부를 수 있다. 태국에서는 미혼 자녀나 아이가 있는 자녀나 모두 ‘n[lu:k]+별명’나 ‘이름’ 호칭어를 사용하여 부른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나 사위와 처부모는 한국에서 처부모와 시부모에 대한 호칭어는 대체로 장인과 시아버지는 ‘아버님’과 ‘아버지’, 그리고 장모와 시어머니는 ‘어머님’, ‘어머니’로 부른다. 태국에서는 처부모와 시부모를 부를 때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고 동일한 호칭어를 사용한다. 장인과 시아버지는 ‘n[p^:] p[p^:]’, ‘p[p^:]’, 장모와 시어머니는 ‘n[m^æ]’, ‘m[m^æ]’를 사용한다.

한국어 친족 호칭어에서는 며느리를 부르는 말이 ‘아가, 새 아가, -어미, -어멈, 애야, 너’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위를 부를 때 한국에서는 ‘성+서방’, ‘여보게’로 부른다. 태국에서는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도 자신의 아들, 딸과 동일하게 생각하므로 자녀에 대한 호칭어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즉 태국어 사위와 며느리 호칭어는 ‘๑๗[lu:k]+별명’이나 ‘별명’, ‘이름’ 호칭어를 사용한다.

친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는 한국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이것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복잡하고 사용법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태국어는 친동기와 그 배우자 호칭어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여 부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친동기를 부를 때 ‘พี่[pʰi:], พี่[pʰi:]+별명’을 사용하고 그 배우자는 ‘น้อง[no:n]’, ‘별명’과 ‘이름’으로 부른다.

부부 호칭어에서도 차이점이 보이는데, 한국어 부부 호칭어는 ‘아이 이름+엄마, 아빠(아버지)’와 같은 간접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자녀를 매개로 한 간접 호칭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3. 한·태 직함 호칭어

한국 사회에서 직위에 따른 호칭어 선택은 어떤 호칭어가 더 정중하게 상대를 대우하는가에 달려 있어 그 선택에 어려움을 준다.

1) 한·태 직함 호칭어의 공통점

두 언어의 직함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연령 차이, 직위의 차이, 상황적 변수 등에 의해 다양한 변이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3-17] 한·태 직함 호칭어 비교

한국	직함+님	사장님, 무장님, 과장님
----	------	---------------

	성+직함	박 부장, 정 사장
	성+직함+님	박 대리님, 이 부장님
	성+이름+직함	김철수 사장, 강성희 과장
	성+이름+직함+님	김철수 사장님, 김영란 부장님
태국	직함	คณบดี [학장님], ผู้อำนวยการ [장관]
	직함+이름	เลขาชีวิตจันทร์ [Chid-jun 비서] อาจารย์กนกกร [Ka-nok-kron 선생님], นายแพทย์ประคอง [Pra-kong 의사선생님]
	직함+이름+성	รองผู้จัดการอำนาจ สอนดี[Aomnat Sondee 부사장님] เลขาสมัคร แจ่มรุก [Soomsri Jangruk 비서]
	kun +이름 + 직함	คุณประสาน ผู้ช่วยฝ่ายการตลาด [Prasan + 씨 + 조수 마케팅 관리자]
	친족 호칭어 + 이름	พี่ประนอม [Pra-noom 언니], น้องนา [Na-pa 동생]

2) 한·태 직함 호칭어의 차이점

두 언어 모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무조건 직함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태국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서로 부를 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직함이 단독으로 쓰이면 존칭접미사 ‘님’이 직함에 붙어 호칭어를 형성한다. 태국에서는 ‘ท่าน[th^an]’, ‘คุณ[kh^n] +이름+직함’을 붙여서 직함을 단독으로 사용한다.

한국어 직함 호칭어는 태국어 직함 호칭어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직함 호칭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 가정 공간 밖으로 나가면 직함 호칭어는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태국에서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말이 보통 윗사람에게는 직함 호칭어를 쓰고 아랫사람이나 친근한 관계는 친족 호칭어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태국어 직함 호칭어는 직함에 이름이나 성을 붙여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성이나 이름이 직함 앞에 붙는다. 태국에서는

대부분 직함을 앞에 붙이고 이름과 성을 뒤에 붙인다.

또한 태국어 직함 호칭어는 성별에 따라 호칭어를 달리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어는 성별에 따라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직함 호칭어는 ‘선생님’은 특이하다. 영어로 번역하면 ‘teacher’인데 한국에서는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상대를 대우하는 표현으로 ‘선생님’을 사용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선생님’이라면 학교에서만 사용한다. 한국어 직함 호칭어 ‘사장님’도 특이하다. 점포나 회사의 사장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나이 지긋한 분을 대우하는 표현으로 ‘사장님’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선생님’이나 ‘사장님’은 한국어에서 범용화하고 있는 직함 호칭어라고 할 수 있다.

4. 한·태 대명사 호칭어

1) 한·태 2인칭 대명사 호칭어 공통점

[표 3-18] 한·태 대명사 호칭어 비교

2 인칭	보통	높임	낮춤
한국	당신, 자네	선생(님)	너
태국	เธอ[tʰɔ:](당신)	ท่าน[tʰan] คุณ[kʰɔn] 선생(님)	แก[kæ] 너

한국어와 태국어는 존대말 체계가 분명한 언어로서, 2인칭 대명사도 그 자체에 높임과 낮춤이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2) 한·태 2인칭 대명사 호칭어 차이점

한국어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너’, ‘당신’ 같은 인칭은 잘 못 쓰면 청자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2인칭 대명사 ‘mā[thʰan]’을 사용할 수 있고, 3인칭 대명사도 사용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대명사 호칭어는 직위에 따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왕에 대한 대명사가 따로 있고, 스님을 위한 대명사가 따로 있으며, 일반 사람인지 직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명사도 다르게 사용한다.

한국어 일반 명사 호칭어로 ‘사모님’, ‘선배님’, ‘선생님’, ‘어르신’, ‘어른’, ‘젊은이’, ‘학생’, ‘총각’, ‘부인’, ‘환자분’, ‘아드님’, ‘며느님’, ‘신랑’, ‘신부’, ‘아가씨’, ‘손님’, ‘박사’, ‘주인공’, ‘딱내’, ‘여편네’, ‘마누라’, ‘가시나’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아내여’, ‘친구야’ ‘가시나야’와 같이 ‘-여, -야’가 결합된 형태도 있다. 그렇지만 태국어는 일반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친족 호칭어로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별명 호칭어 가운데 청자의 출신지역명을 이용한 별명 호칭어가 있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온 비전문직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청자를 ‘수원댁’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러한 호칭어 유형이 없다.

5. 한·태 기타 호칭어

한국어 기타 호칭어는 상대의 이름이나 직함을 알 수 없고, 화자 쪽으로 주의 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보세요, 요보(시)게, 이봐요’와 ‘저기요, 여기요’와 같은 형태가 있다. 그런데 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와 기능을 하는 호칭어가 없다.

태국어 기타 호칭어로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사용하는 감상 호칭어 ‘rak[thʰi: rak], sud rak[sud thʰi: rak]’은 ‘허니/달링, 사랑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랑 표현의 어휘나 구문으로 호칭을 하지는 않는다.

제 4 장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제 1 절 호칭어 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태국어와 한국어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다. 사회 문화적 양상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태국에서 한국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교육 내용 가운데 호칭어에 대한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 한국어와 태국어 호칭어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다는 것을 논의 하였다. 친족 호칭어는 두 언어의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 한국어는 전통적으로 가족, 남성과 나이 중심주의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에 대한 호칭어는 여성에 대한 호칭어보다 존대의 뜻을 더 포함하는 우가 있다. 표준 화법에서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어는 ‘아버님’이고,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어는 ‘어머님, 어머니’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태국에서는 가족과 나이를 중심으로 호칭어가 구성되어 있다. 가족과 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양상은 양국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호칭어는 의사소통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호칭어를 잘 못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호칭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적 맥락과 규칙을 모르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학습자 언어와 목표어의 호칭어를 비교 연구하는 일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3장 3절에서 한국어와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를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개발 및 확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호칭어 교육의 현황

1) 태국에서 사용하는 교재 분석

3장에서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특징을 살펴 보고 다섯 가지 호칭어를 중심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태국에서 사용하는 교재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능력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우선 한국어 교재와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호칭어 구사 능력 간의 상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황을 점검해 보기로 하였다.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들의 권역을 4개로 나누고 권역별로 한 대학씩 4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첫째 대학교는 태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치앙마이 랏차팻대학교로, 2006년에 전공으로 한국어과를 개설 하였다. 2011년 현재 한국어과 교수진은 전임교수 6명에 시간강사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교수 중 태국인은 4명인데 2명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다. 학생 수는 1학년 48명, 2학년 33명, 3학년 29명, 4학년 41명이다.

둘째 대학교는 태국 북부와 중부 사이에 있는 나레수안대학교로, 2007년에 전공으로 한국어과를 개설하였다. 2011년 현재 한국어과 교수진은 전임교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교수 중 태국인은 4명인데 3명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다. 학생 수는 1학년 29명, 2학년 22명, 3학년 24명, 4학년 23명이다.

셋째 대학교는 태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시나카린위룻대학교로, 2005년에 전공으로 한국어과를 개설하였다. 2011년 현재 한국어과 교수진은 전임교수 4명에 시간강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교수 중 태국인은 3명인데 2명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다. 학생 수는 1, 2학년 각 27명, 3, 4 학년 각 18명이다.

넷째 대학교는 태국 남부 지방의 송클라대학교 팻따니 캠퍼스로, 1999년에 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어과가 전공으로 승격되었다. 2011년 현재 한국어과 교수진은 전임교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교수 중 태국인은

7명인데 3명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다. 학생 수는 1학년 18명, 2학년 11명, 3학년 6명, 4학년 2명이다. 송클라대학교에서는 4학년 학생 수가 적어 3학년까지만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 4-1] 설문조사 대상인 태국 내 4개 한국어학과 현황

대학교명	교수진	학생 수
치앙마이 랏차팍	전임	
	태국인 4명 (2명은 한국 유학 중)	1 학년 48명
	한국인 3명	2 학년 33명
	시간강사	3 학년 29명
	한국인 2명	4 학년 41명
나레수안	전임	1 학년 29명
	태국인 4명 (3명은 한국 유학 중)	2 학년 22명
	한국인 3명	3 학년 24명
		4 학년 23명
시나카린위룻	전임	1 학년 27명
	태국인 3명 (2명은 한국 유학 중)	2 학년 27명
	한국인 1명	3 학년 18명
	시간강사	4 학년 18명
	한국인 6명	
송클라	전임	1 학년 18명
	태국인 7명 (3명은 한국 유학 중)	2 학년 11명
	한국인 3명	3 학년 6명

		4 학년 2명
--	--	------------

학습자의 한국어 호칭어 능력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교재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4개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다 다르다. 치앙마이 랏차팻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교재를 사용한다. 나레수안대학교는 경희대학교의 교재를 사용하며, 시나카린위롯대학교와 송클라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교재를 쓴다. 위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다양한 한국어 호칭어를 다루고 있다.

먼저 서울대학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어 호칭어를 이름 호칭어,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와 기타 호칭어로 나누어 제시해 본다.

[표 4-2] 서울대학교 교재

종류		호칭어		호칭어	호칭어
한국어1	이름+씨, 성+이름+씨	아주머니 아저씨	성 +직함+님 (김 선생님) 직함+님 (선생님)	손님	여보세요?
한국어2	이름+씨, 이름, 성+이름+씨	아저씨, 아주머니 어머니, 아들, 언니 , 형, 아가씨, 아버지	직함+님, (선생님) 성+직함+님 (김 선생님)	여러분, 손님	-
한국어3	이름+씨, 이름+호격조사 (아/야) ,	엄마, 아저씨, 아버지,	직함+님, (선생님)	너 여러분,	-

	이름	아주머니 형	성+직함+님 (김 선생님)	손님,	
한국어4	이름, 이름+씨, 이름+호격조사 (아/야)	아버지, 어머니, 엄마 여보, 형, 아빠	직함+님 (선생님) , 성+직함+님 (김 선생님)	너, 애들아 당신	-

서울대학교 교재에는 첫째 이름 호칭어가 ‘이름’, ‘이름+씨’, ‘이름+호격조사(이/야)’, ‘성+이름+씨’의 네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친족 호칭어는 부모에 대한 호칭어와 식당이나 학교에서 범용화된 ‘아저씨, 아주머니’와 같은 친족 호칭어가 사용되었다. 셋째, 직함 호칭어로는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선생님’, ‘김 선생님’을 볼 수 있다. 넷째 2인칭대명사와 일반명사는 ‘너’, ‘당신’, ‘애들아’, ‘여러분’, ‘손님’ 등 몇 가지를 볼 수 있다. 기타 호칭어는 전화할 때 사용하는 ‘여보세요’로 구성한다.

서울대학교 교재의 호칭어 제시 및 구성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이름 호칭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형식은 여러 가지인데 <한국어 1 - 4>에 걸쳐 네 개의 형식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름 호칭어 형식은 ‘성+씨’, ‘군/양’, ‘미스터/미스’, ‘-님’, ‘선생님’으로 다양한데 이러한 형식을 볼 수 없다. 둘째, 친족 호칭어로 일상에서는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 사용 예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친족 간에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어의 예는 별로 없다. 부부에 대한 호칭어나 처부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대명사 호칭어는 2인칭대명사와 일반명사로 구성하고 있어 실제 상황과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호칭어로 전 할 때 사용하는 ‘여보세요?’ 형식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저기요’, ‘여기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대 교재는 호칭어 형태를 보이거나 대화문에서 제시되어 있을 뿐 호칭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방을 부르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사용한다. 이 부분을 교재에서 설명하지 않고, ‘당신→You’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은 학습자가 호칭어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 수 없어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다. 사실 태국인 학습자도 이 부분에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재에서 호칭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학습자가 잘 이해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4-3] 경희대학교 교재

종류	호칭어	호칭어		호칭어	호칭어
초급 I	이름+씨, 성+이름+씨	아주머니, 아저씨	성+이름+ 직함, 직함+님	손님, 여러분	여보세요?
초급 II	이름+씨	아저씨, 아주머니	직함+님, (선생님) 성+직함+님 (김 선생님)	손님, 여러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중급 I	이름+씨, 이름	엄마, 어머니, 여보, 형, 아저씨	직함+님, 성+직함, 직함	당신, 선배님, 여러분	여보세요?
중급 II	이름+씨, 이름	아버지, 어머니, 여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직함+님, 성+직함+님	선배님, 너	여보세요?
	이름+씨,		—		—

고급 I	이름+호격 조사 (야)	할머니, 할아버지		너희들	
고급 II	이름+씨, 이름	어머니, 아주머니	신부님	여러분, 너	-

경희 대학교 교재에서는 이름 호칭어 유형 중 ‘이름+씨’ 형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재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은 유학생인데 친구를 부를 때 ‘이름+씨’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가 ‘이름+씨’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이름+씨’과 ‘이름+호격조사(군/양)’의 형식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방송이나 뉴스 자료에서 쓰이고 있다. ‘이름’만 부르는 형식은 교재 내용을 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외국인 친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호칭어 형식은 가족 관계에서 사용하는 호칭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부계 호칭어로 이루어져 있다. 모계 호칭어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태는 교재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직함 호칭어 유형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직함+님(선생님)’ 형식과 ‘성+직함+님 (김선생님)’이 나타나는데, 학교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의 직함 호칭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특이하게 고급 교재에서 ‘신부님’의 사용 예가 보인다. 대명사 호칭어 유형은 ‘여러분, 너, 당신, 야, 선배님, 손님’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칭어 예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호칭어는 전화할 때 사용하는 ‘여보세요?’ 형식이 보일 뿐 다른 기타 호칭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경희대학교 교재는 서울대학교 교재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호칭어를 교재에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초급 I에서 고급 II에 걸쳐 줄곧 ‘이름+씨’ 형식의 이름 호칭어가 주종을 이룬다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직함 호칭어는 학교 사회에서 사용하는 ‘선생님’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좀 더 다양한 직함 호칭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호칭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칭

어에 대한 설명과 연습 활동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표 4-4] 서강대학교

어 종류	호칭어	호칭어	직함 호칭어	호칭어	호칭어
한국어 1A	이름+씨	아저씨	—	—	여기요, 저기요, 여보세요.
한국어 1B	이름+씨	어머니, 아저씨	—	—	여기요, 여보세요?
한국어 2A	이름+씨	아저씨, 아줌마, 아주머니	직함+ (선생님)	손님	저기요, 저기, 저, 여보세요.
한국어 2B	이름+씨, 이름+호격조 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주머니, 누나, 이모	직함+님 (선생님)	여러분	—
한국어 3A	이름+씨, 성+이름+씨, 이름+호격조 사 (아) , 이름	오빠, 형	직함+님, (선생님) 성+직함+님 (김 부장님)	너	여보세요, 저,
한국어 3B	이름+씨, 성+이름+씨, 이름+호격조 사 (아/야)	아빠, 아버지	직함+님 (선생님)	손님	여기요. 저기요? 여보세요?
한국어	이름+씨,	오빠		여러분,	여보세요?

4A	성+이름+씨 , 이름, 이름+호격조 사 (아/야)		직함+님, (선생님, 사장님, 부장님) 성+직함, (김 비서)		
한국어 4B	이름+씨, 성+이름+씨, 이름+호격조 사	오빠, 아저씨	직함+님	여러분, 너, 고객님	-
한국어 5A	이름+씨, 이름+호격조 사	아버지, 여보,	성+직함+님 (김 부장님)	여러분, 너	여보세요?
한국어 5B	이름+씨, 성+이름+씨,	형, 엄마, 아가씨, 아줌마, 오빠, 여보	직함+님, (선생님 부장님, 과장님)	너, 애들아, 너희들, 사모님, 당신	저기요.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교재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호칭어를 살펴본다. 첫째, 먼저 이름 호칭어는 교재의 등장인물이 외국인인데 이들 간의 호칭은 ‘이름+씨’ 형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의 이름 호칭어라면 ‘성+이름+씨’ 형식도 가능할 텐데 외국인의 이름이어서 ‘성’은 제외하고 ‘이름+씨’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직함 호칭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직함+님(선생님)’ 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친족 호칭어는 대부분이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 형태의 사용만이 나타났다. 넷째 대명사 호칭어는 ‘너희들, 사모님, 당신, 애들아, 여러분, 손님, 고객님’ 등 다양한 여러 형식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기타 호칭어인 ‘여보세요?’는

듣기 대본에서 나타났다.

서강대학교 교재의 부족한 부분은 친족 호칭어의 어휘나 사용례가 다양한 가족 관계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범용화된 호칭어 정도만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2인칭 대명사는 초급, 중급 수준에 적절한 것을 많이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부분도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교재인 Workbook의 학습 활동에서는 호칭어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를 분석한 결과 교재는 교재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서강대 교재는 비교적 다양한 호칭어 예와 그 사용법을 보이는 면이 있다. 『서강한국어 5B』 7과에 호칭과 몸짓언어가 제시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와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다른 교재와 비교하면 친족 호칭어 어휘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지만 설명하는 부분이나 학습 활동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호칭어는 한국 실생활에서 ‘아버님’, ‘아버지’, ‘아빠’를 다 사용하는데 교재에서는 사용법이나 설명하는 부분을 볼 수 없다. 교재에는 부모와 자녀 호칭어, 친동기와 그 배우자 호칭어, 처부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나 범용화된 호칭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 실수가 생길 수 있다. 보통 외국인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사용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문화까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들에서 다루는 한국어 호칭어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가 다양하지 않을뿐더러, 그 교재들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태국어의 관련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는 1999년에 송클라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처음 설립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20여개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만큼 태국인 학습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 한국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계속 증

가하고 있지만 태국에서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아직도 부족하다. 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초급 한국어에 머물러 있으며 그 내용은 기초적 항목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우친 교재이다.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른 교재는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태국에서 사용하는 교재인 서울대 교재, 경희대 교재, 서강대 교재는 호칭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구성한 호칭어도 부족하다.

2) 태국인 학습자의 호칭어 사용 현황 조사 분석

외국인이 한국인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호칭어 사용이라 하겠다. 태국사람도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한국어 호칭어,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매우 낯설어서 상대방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잘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름, 직함, 나이와 그 사람의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 그 이유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적절한 호칭어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를 분석한 결과 그 용례나 설명, 학습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분석 대상 교재를 학습한 태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호칭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호칭어 교육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태국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한국어 호칭어를 알아보고 오류를 찾기 위해서 한국어 호칭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호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어떤 오류를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 조사 대상

태국 지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한 개 대학씩 총 4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한국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칭어

사용 실태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 수는 총 374명이다.

[표 4-5] 설문 조사 대상자

(3)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설문 조사는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태국 현지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구성했는데 해당 대학 한국어과 교수들이 설문 조사를 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필자가 설문을 직접 할 경우에도 태국어로 설명하여 학습자의 오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몇 명의 대상자와는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학습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설문에 답하는 시간이 짧았다. 보통 1,2학년은 20~25분, 3, 4학년은 15~20분 정도 걸렸다.

[표 4-6] 호칭어에 대한 설문지

	다음 중에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세요.
1.	남 () 여()
2.	지금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진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기)이나 취업 ② 한국인과 의사소통 ③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④ 개인 흥미나 취미 ⑤기타()
	다음 중 이야기 할 때 알맞은 것을 ‘√’를 하세요.
4.	철수야, ① 안녕하십니까? ② 안녕하세요? ③ 안녕!
5.	김하늘 씨, ① 안녕하십니까? ② 안녕하세요? ③ 안녕!
6.	사장님, ① 안녕하십니까? ② 안녕하세요? ③ 안녕!
7.	학교에서 ‘김은선’을 어떻게 부릅니까? ① 김은선 ② 은선 씨 ③ 은선아! ④ 김은선님
8.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① 김철수 ② 김 씨 ③ 김님 ④ 김철수님
9.	친하지 않고 그냥 아는 ‘박가은’이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부릅니까? ① 박가은님 ② 박가은 씨 ③ 박 씨 ④ 가은아!
10.	외국인이 한국이름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김장미’란 한국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① 김 씨 ② 장미 씨 ③ 미스 김 ④ 김장미 씨
11.	남편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① 아줌마 ② 아가씨 ③ 여동생 ④저기요
12.	부부가 서로 부를 때 어떤 호칭어를 안 씁니까? ① 여보 ② 당신 ③ 자기야 ④ 임마
13.	수현은 딸 성희와 함께 대학교 동창 지영 집에 놀러 갔다. 지영 집에서 지영의 아들 하림을 처음 만났다. 하림은 어머니의 친한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① 어머니 ② 아줌마 ③ 이모 ④ 수현 씨
14.	가족에서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부를 때 어떤 호칭어를 안 씁니까? ① 며느리 ② 아가 ③ 애미 ④ 아가씨
15.	회사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부하 ‘박희수’직원에게 어떻게 부릅니까? ① 박 씨 ② 희수 씨 ③ 박희수님 ④ 희수님
16.	회사에서 상사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① 부장님, 아내께서 괜찮으세요? ③ 부장님, 사모님께서 괜찮으세요?
	② 부장님, 부인께서 괜찮으세요? ④ 부장님, 만수라께서 괜찮으세요?
17.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① 저기요,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② 당신,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③ 아줌마,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④ 아저씨,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18.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지나가는 30대 초반 여자에게 사라고 권하는데 어떤 호칭어를 부르지 않습니까? ① 아줌마, 들어오세요. ② 손님, 들어오세요. ③ 언니, 들어오세요. ④ 아가씨, 들어오세요.
19.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집주인이나 직원을 어떻게 부릅니까? ① 아줌마, 비빔밥 하나 주세요. ② 이모, 비빔밥 하나 주세요. ③ 아가씨, 비빔밥하나 주세요. ④ 저기요, 비빔밥 하나 주세요.
20.	한국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 친구의 아버지께 어떻게 인사합니까? ① 아버지 안녕하세요? ② 아버님, 안녕하세요? ③ 아저씨, 안녕하세요? ④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설문지는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학습자의 성과 학년을 적도록 하였다. 둘째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번부터 6번까지는 호칭어에 관한 인사말을 구성하였다. 7번부터 20번까지는 한국어 호칭어로 구성하는 데 7번부터 10번까지는 한국어 이름 호칭어, 11번부터 14번까지, 그리고 20번은 한국어 친족 호칭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구성한 항목이다. 15번과 16번은 한국어 직함 호칭어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17번, 18번과 19번은 대명사와 기타 호칭어의 여러 상황들로 설정하였다.

(4) 조사 결과 및 분석

[표 4-7] 나레수안 대학교 조사 결과

	(항상 답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종합
4	3	86.2%	100.0%	100.0%	100.0%	96.6%
5	2	93.1%	100.0%	100.0%	100.0%	98.3%
6	1	0.0%	0.0%	91.7%	87.0%	44.7%
	(2)	86.2%	59.1%	8.3%	13.0%	41.7%
7	3	48.3%	77.3%	91.7%	65.2%	70.6%
	(2)	20.7%	18.2%	8.3%	34.8%	20.5%
8	4	41.4%	63.6%	25.0%	43.5%	43.4%
	(2)	44.8%	27.3%	45.8%	39.1%	39.3%
9	2	82.8%	95.5%	91.7%	82.6%	88.1%
10	3	51.7%	68.2%	45.8%	26.1%	48.0%
11	2	10.3%	18.2%	58.3%	43.5%	32.6%
12	4	93.1%	68.2%	62.5%	34.8%	64.6%
13	2	10.3%	13.6%	8.3%	13.0%	11.3%
	(1)	13.8%	0.0%	54.2%	34.8%	25.7%
	(3)	75.8%	86.3%	37.5%	47.8%	61.85%
14	4	100.0%	0.0%	79.2%	21.7%	50.2%
15	2	55.2%	50.0%	75.0%	43.5%	55.9%
16	3	86.2%	100.0%	100.0%	82.6%	92.2%
17	1	55.2%	86.4%	87.5%	82.6%	77.9%
	(3/4)	27.6%	13.6%	8.3%	4.3%	18.6%

18	1	10.3%	50.0%	16.7%	69.6%	36.6%
	(2)	3.4%	9.1%	75.0%	0.0%	21.9%
19	1	37.9%	0.0%	0.0%	4.3%	10.6%
	(4)	55.2%	100.0%	0.0%	73.9%	57.3%
20	2	24.1%	9.1%	58.3%	65.2%	39.2%
	(1)	69.0%	86.4%	41.7%	30.4%	56.9%
	(3)	6.9%	4.5%	0.0%	4.3%	3.9%
평균 정답률		44.0%	46.7%	53.0%	49.7%	48.4%

나레수안대학교 학습자의 설문조사 결과의 특징을 보면 인사말에 관한 호칭어는 정답률이 높긴 하지만 직장에서 인사말에 관한 호칭어는 정답률이 낮다. 그런데 직함 호칭어를 묻는 16번을 보면 다른 호칭어보다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다. 가장 낮은 정답률은 친족 호칭어와 대명사 호칭어다. 정답률을 보면 학습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조금 아는 사람에 대한 호칭어 사용법을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결과에서 보면 2, 3학년이 정답률이 비교적 높고, 1학년과 4학년 학생의 정답률은 높지 않다. 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학습 내용이 문어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말하기 듣기를 연습하는 활동을 접하는 경우는 적다. 게다가 1, 2, 3학년 때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태국이라는 특성 상 교실 밖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레수안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경희대 교재인데 앞서 교재 분석에 지적하였듯이 이 교재에는 호칭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4-8]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조사 결과

문항	정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종합
4	3	85.2%	100.0%	100.0%	100.0%	96.3%
5	2	44.4%	92.6%	88.9%	94.4%	80.1%
6	1	81.5%	88.9%	94.4%	100.0%	91.2%
	(2)	18.6%	11.1%	5.6%	0.0%	8.8%

7	3	40.7%	77.8%	11.1%	94.4%	56.0%
	(2)	48.1%	14.8%	55.6%	5.6%	31.0%
8	4	51.9%	40.7%	44.4%	44.4%	45.4%
	(2)	22.2%	25.9%	38.9%	44.4%	32.9%
9	2	63.0%	85.2%	88.9%	72.2%	77.3%
10	3	25.9%	66.7%	38.9%	33.3%	41.2%
11	2	18.5%	55.6%	33.3%	88.9%	49.1%
12	4	25.9%	59.3%	72.2%	66.7%	56.0%
13	2	22.2%	70.4%	38.9%	11.1%	35.6%
	(1)	37.0%	3.7%	16.7%	11.1%	17.1%
	(3)	25.9%	25.9%	33.3%	72.2%	39.3%
14	4	51.9%	100.0%	38.9%	33.3%	56.0%
15	2	29.6%	74.1%	11.1%	66.7%	45.4%
16	3	22.2%	51.9%	50.0%	72.2%	49.1%
17	1	40.7%	74.1%	72.2%	94.4%	70.4%
	(3/4)	29.6%	25.9%	11.1%	0.0%	16.7%
18	1	25.9%	96.3%	16.7%	50.0%	47.2%
	(2)	22.2%	0.0%	61.1%	27.8%	27.8%
19	1	40.7%	22.2%	0.0%	5.6%	17.1%
	(4)	25.9%	66.7%	66.7%	77.8%	59.3%
20	2	14.8%	85.2%	66.7%	77.8%	61.1%
	(1)	40.7%	11.1%	11.1%	22.2%	21.3%
	(3)	33.3%	3.7%	16.7%	0.0%	13.4%
평균 정답률		38.1%	55.6%	46.2%	52.2%	48.0%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사말에 관한 호칭어의 정답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름 호칭어 ‘성+이름+씨’는 정답률이 다른 문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호칭어인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의 정답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학습자들은 기타 호칭어 ‘저기요’에서 70%가 넘는 정답률을 보이는데, 이는 확인 결과 설문 조사 가까운 시점에 이에 대한 학습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나카린위룻 대학교는 서울대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나레수안 대학교와 비슷한데, 앞에서 설명한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특성 상 2,3학년 학습자가 4학년 학습자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치앙마이 라차팻 대학교 조사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종합
4	3	70.8%	84.8%	96.6%	100.0%	88.1%
5	2	72.9%	81.8%	82.8%	95.1%	83.2%
6	1	91.7%	72.7%	82.8%	97.6%	86.2%
	(2)	8.3%	27.3%	17.2%	2.4%	13.8%
7	3	45.8%	33.3%	27.6%	48.8%	38.9%
	(2)	37.5%	51.5%	51.7%	34.1%	43.7%
8	4	43.8%	30.3%	34.5%	48.8%	39.3%
	(2)	29.2%	36.4%	48.3%	36.6%	37.6%
9	2	89.6%	69.7%	75.9%	82.9%	79.5%
10	3	50.0%	54.5%	37.9%	39.0%	45.4%
11	2	8.3%	45.5%	20.7%	26.8%	25.3%
12	4	25.0%	18.2%	24.1%	43.9%	27.8%
13	2	54.2%	33.3%	55.2%	26.8%	42.4%
	(1)	33.3%	21.2%	20.7%	51.2%	31.6%
	(3)	8.3%	33.3%	17.2%	17.1%	19.0%
14	4	29.2%	57.6%	31.0%	56.1%	43.5%
15	2	43.8%	45.5%	37.9%	48.8%	44.0%
16	3	45.8%	39.4%	62.1%	46.3%	48.4%
17	1	50.0%	39.4%	51.7%	43.9%	46.3%
	(3/4)	33.3%	18.2%	17.2%	26.8%	23.9%
18	1	66.7%	42.4%	37.9%	34.1%	45.3%
	(2)	8.3%	30.3%	27.6%	48.8%	28.8%
19	1	6.3%	18.2%	34.5%	53.7%	28.1%
	(4)	60.4%	42.4%	37.9%	29.3%	42.5%
20	2	31.3%	12.1%	58.6%	58.5%	40.1%
	(1)	54.2%	42.4%	20.7%	31.7%	37.2%
	(3)	6.3%	39.4%	20.7%	7.3%	18.4%
평균 응답률		44.1%	42.9%	45.1%	48.8%	45.2%

치앙마이 라차팻 대학교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다른 대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응답률 중 인사말에 호칭어에 관한 응답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름 호칭어 ‘성+이름+씨’는 응답률이 79%로 다른 호칭어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른 호칭어인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이 대체로 낮다. 가장 낮은 응답률

을 보인 것은 친족 호칭어다. 치앙마이 라차팻 대학교는 서강대와 서울대학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능숙한 사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다른 대학교와 비슷하다.

[표 4-10] 송클라 대학교 조사 결과

번호	항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종합
4	3	44.4%	90.9%	100.0%	-	78.5%
5	2	38.9%	81.8%	100.0%	-	73.6%
6	1	66.7%	81.8%	100.0%	-	82.8%
	(2)	27.8%	18.2%	0.0%	-	15.3%
7	3	38.9%	27.3%	0.0%	-	22.1%
	(2)	33.3%	45.5%	83.3%	-	54.0%
8	4	27.8%	27.3%	33.3%	-	29.5%
	(2)	22.2%	54.5%	16.7%	-	31.1%
9	2	61.1%	90.9%	100.0%	-	84.0%
10	3	27.8%	27.3%	16.7%	-	23.9%
11	2	11.1%	54.5%	0.0%	-	21.9%
12	4	33.3%	72.7%	83.3%	-	63.1%
13	2	100.0%	18.2%	33.3%	-	50.5%
	(1)	0.0%	36.4%	16.7%	-	17.7%
	(3)	0.0%	27.3%	50.0%	-	25.8%
14	4	27.8%	72.7%	83.3%	-	61.3%
15	2	22.2%	63.6%	66.7%	-	50.8%
16	3	38.9%	72.7%	33.3%	-	48.3%
17	1	33.3%	90.9%	83.3%	-	69.2%
	(3/4)	44.4%	0.0%	0.0%	-	14.8%
18	1	16.7%	27.3%	16.7%	-	20.2%
	(2)	38.9%	9.1%	16.7%	-	21.5%
19	1	22.2%	0.0%	0.0%	-	7.4%
	(4)	27.8%	72.7%	83.3%	-	61.3%
20	2	16.7%	45.5%	66.7%	-	42.9%
	(1)	61.1%	45.5%	16.7%	-	41.1%
	(3)	11.1%	9.1%	0.0%	-	6.7%
평균 정답률		33.3%	48.7%	46.7%	-	42.9%

송클라 대학교는 3 학년까지의 학습자만 설문조사를 했다. 4 학년 학습

자는 2명 밖에 없었는데 연락이 어려워 설문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대학교와 대체로 비슷하다. 정답률은 인사말에 관한 호칭어의 경우가 가장 높다. 그리고 9번에서 이름 호칭어 ‘성+이름+씨’는 정답률은 84%로 다른 문항보다 매우 높다. 다른 호칭어인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답률이 대체로 낮다. 가장 낮은 정답률은 19번으로 7.4%로 나타났다. 송클라대학교는 서울대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호칭어에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다른 대학교와 비슷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사말에 관한 호칭어의 정답률은 네 개 대학에서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정답률은 9번으로 ‘성+이름+씨’로 나타났다. 이것은 각 교재마다 가장 많이 쓰인 호칭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고르게 정답률을 보이는데, 학습자가 잘 이해하고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호칭어들인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답률이 대체로 낮다.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19번에서 나레수안대학교와 송클라대학교의 정답률이 다른 학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나레수안 대학교에서 정답률이 다른 대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교재를 통해 배우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이 2, 3학년 학습자들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태국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4학년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한국어 학습 과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4개 대학 평균 정답률을 보기로 한다.

[표 4-11] 4 개 대학교 평균 정답률

	8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합
4	3	71.7%	93.9%	99.1%	100.0%	91.2%

5	2	62.3%	89.1%	92.9%	96.5%	83.8%
6	1	60.0%	60.9%	92.2%	94.8%	76.2%
	(2)	35.2%	28.9%	7.8%	5.2%	19.3%
7	3	43.4%	53.9%	32.6%	69.5%	46.9%
	(2)	34.9%	32.5%	49.7%	24.8%	37.3%
8	4	41.2%	40.5%	34.3%	45.6%	39.4%
	(2)	29.6%	36.0%	37.4%	40.1%	35.2%
9	2	74.1%	85.3%	89.1%	79.3%	82.2%
10	3	38.9%	54.2%	34.8%	32.8%	39.6%
11	2	12.1%	43.4%	28.1%	53.1%	32.2%
12	4	44.3%	54.6%	60.5%	48.5%	52.9%
13	2	46.7%	33.9%	33.9%	17.0%	35.0%
	(1)	21.0%	15.3%	27.0%	32.4%	23.0%
	(3)	27.5%	43.2%	34.5%	45.7%	37.7%
14	4	52.2%	57.6%	58.1%	37.1%	52.7%
15	2	37.7%	58.3%	47.7%	53.0%	49.0%
16	3	48.3%	66.0%	61.4%	67.1%	59.5%
17	1	44.8%	72.7%	73.7%	73.7%	65.9%
	(3/4)	33.7%	14.4%	9.2%	10.4%	16.9%
18	1	29.9%	54.0%	22.0%	51.2%	37.3%
	(2)	18.2%	12.1%	45.1%	25.5%	25.0%
19	1	26.8%	10.1%	8.6%	21.2%	15.8%
	(4)	42.3%	70.5%	47.0%	60.3%	55.1%
20	2	21.7%	38.0%	62.6%	67.2%	45.8%
	(1)	56.2%	46.3%	22.5%	28.1%	39.1%
	(3)	14.4%	14.2%	9.3%	3.9%	10.6%
평균 정답률		39.9%	48.5%	47.7%	50.2%	46.2%

이 결과를 보면 태국에서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한국어 호칭어를 잘 구사하게 하려면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학습자의 학습량과 능력에 따라 그 구사능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19) 4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2,3학년보다 낮기 때문에 학습자를 인터뷰를 했다. 첫째 학습자가 한국어 호칭어를 1, 2, 3학년에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경우가 적어서 잃어버린 경우가 생긴다. 둘째 4학년에 한국어 과목들 중에서 한국어에 관한 호칭어가 별로 없다. 보통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4학년 교육과정은 문어 (읽기, 쓰기)에 대한 과목들로 구성된다. 셋째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연습할 기회가 없다.

설문조사 4번부터 6번까지는 호칭어에 관한 인사말을 구성하였는데 4번에서는 정답률을 보면 2, 3학년은 90%이상의 정답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4학년은 100%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4번은 학습자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호칭어와 경어법의 사용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1학년은 다른 학년보다 정답률이 낮는데 그 이유는 1학년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 안 돼서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5번 항목은 화자와 청자는 성인이며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존대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 2, 3, 4학년은 정답률이 90%를 나타냈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정답이 높은 것으로, 1학년 학습자는 정답률이 높지 않다. 이 5번 항목은 사용하는 교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 하겠다. 6번은 ‘사장님’의 ‘님’ 제시를 통해서 학습자가 종결어미로 존대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학습자 학년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한국어 이름 호칭어에 대한 설문 항목이다. 이름 호칭어의 정답률은 낮은 편인데, 대체로 3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인다. 8번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를 볼 때, 인터넷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를 띠고 사용하는 ‘성+이름+님’ 호칭어이다. 태국 학습자는 이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아직 모르는데 이에 따라 태국 사회문화에 비추어 답을 한 것이다. 9번에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5번 사회적인 문제와 연계가 있다. 한국어 교재들에 ‘이름+씨’, ‘성+이름+씨’를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10번의 경우 정답률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름 호칭어 교육이 더 필요함을 말해 준다.

11번부터 14번까지는 한국어 친족 호칭어 설문 항목이다. 11번은 남편의 여동생에게 사용하는 친족 호칭어 ‘아가씨’에 대한 질문인데 정답률이 32.2%로 매우 낮다. ‘아가씨’는 처녀나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의미와 더불어 ‘손아래 시누이를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아가씨’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젊은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리하고 하지만 근무하는 여성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남자도 있다. 일반명사 호칭어로서의 ‘아가씨’와 변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12번 부부 호칭어의 정답률은 52.9%로 나타났다. 반

을 조금 넘긴 정답률이기에 부부 호칭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13번에서 일반명사로 범용화된 호칭어로서의 ‘아줌마’의 정답률은 35%인 것을 볼 수 있다. 표준 화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는 ‘이모’의 정답률은 37.7%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답한 학습자는 23.0%인데 이것은 태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4번 친족 호칭어의 정답률도 대체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친족 호칭어와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5번과 16번은 한국어 직함 호칭어인데 직장에서의 호칭어 정답률이 49%로 나타나서 정답률이 상당히 낮다. 16번 문제에서 직함 칭어의 정답률은 59.5%로 나타났는데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어 역시 직함 호칭어 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17번 기타 호칭어는 표준화법에서 장려하는 형태인 ‘저기요’의 정답률은 65.9%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3번과 4번인 ‘아줌마, 아저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률은 16.9%로 나타났다. 표준화법과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호칭어를 합한 전체 반응률은 82.8%인 것을 알 수 있다.

18번 문항의 정답 ‘아줌마’는 37.3%로 매우 낮다. 설문 지문이 부정 질문이어서 응답자가 질문을 잘 못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학습자가 한국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알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19번 문항은 지시항 네 개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표준화법에 장려하는 ‘저기요’의 정답률은 55.1%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상생활에서 ‘이모’, ‘아줌마’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가씨’는 직원을 부를 때 사용 가능하나 요즈음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어 교재에서 식당에서 직원을 부르는 호칭으로 ‘저기요’와 ‘아줌마’가 많이 제시되어 있고, 태국에서도 ‘아줌마’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번 문제는 표준화법 따라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님’으로 호칭해야 질문으로 정답률은 45.8%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저씨’를 답한

학습자는 49.7%로 그 이유는 태국문화의 영향을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어 친족 호칭어 가운데 범용화 되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저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호칭어 교육의 필요성

요즈음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태국인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으로 졸업 후 한국 회사나 한국계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태국인 학습자는 대부분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에 한국계 회사에서 번역, 통역을 많이 한다. 그런데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기에 한국 사람과 대화 연습을 하는 경우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사람과 호칭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호칭어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고 태국어와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태국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한국어 호칭어를 접할 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호칭어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언어 표현이므로 한국어의 호칭어 사용법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 한국 문화의 특징이 드러난다. 한국어 호칭어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특징이 있다. 마찬가지로 태국어 호칭어에서도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의식을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 주고 교육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은 태국인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친숙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서 드러나듯 학습자가 호칭어 사용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한국어 교재에서 호칭어를 다루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3장에서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는데,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호칭어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태국문화와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게 되면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용에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호칭어는 표준 화법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잘 이해하고 호칭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국어 호칭어의 사용 상황이나 양국 간의 차이점을 제시해 본다.

첫째 호칭어는 여러 가지 종류로 구성되는데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호칭어가 다르다. 학습자에게 호칭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태국어와 견주어 설명할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직함 호칭어는 여러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직함 호칭어는 사회적 관계인 직장에서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높여 부르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나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친족 호칭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부분은 설문 조사 결과에서 직함 호칭어에 대한 정답률이 매우 낮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가씨’의 경우 그 의미는 학습자가 이해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설문 조사 결과에서 정답률도 낮았다. 한국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도 한국어 표준 화법과 같이 주위 상황이나 현재 많이 사용하는 호칭어를 같이 설명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구성해야 한다.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호칭어가 부족하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교재에는 호칭어 어휘만 제시될 뿐 실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예시나 설명이

없다. 즉, 호칭어 사용 상황이 제시되지 않으면 학습자가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다만, 영어로 번역하여 병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학습자가 어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칠 뿐 실제적 사용 상황은 모르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를 부르는 ‘당신’을 서울대 교재에서 ‘You’로 제시하는데 사용 상황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당신’이라고 부른다고 답한 학습자가 있다. 따라서 호칭어에 대한 교육은 실제적 상황에 바탕을 둔 말하기 연습이나 말하기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 살펴본 교재 분석에서 호칭어에 대한 제시가 매우 단순하며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다양한 사용 상황과 변인에 해당하는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 사용 방식이 다르다. 설문 조사 분석을 보면 학습자가 태국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답변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를 공부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태국 문화에 기반하여 설문 항목에 답을 하였다. 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하기 위해 태국어 호칭어와 한국어 호칭어를 대비하여 교재 구성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름 호칭어의 경우 한국어는 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씨, 군/양, 선생’, 앞에 성을 붙이거나 ‘성+이름’의 형태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태국어에서는 호격조사나 의존명사를 ‘이름+성’ 앞에 붙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태국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아는 관계라면 청자의 별명을 부르거나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태국어는 친동기와 그 배우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친동기를 부를 때 성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여동생은 친동기에 대한 호칭어로 ‘오빠’와 ‘언니’를 부르고 남동생은 ‘형, 형님’과 ‘누나’라는 어휘를 쓴다. 일반명사를 사용하는 한국어 호칭어로 ‘사모님’, ‘선배님’, ‘선생님’, ‘어르신’, ‘어른’, ‘젊은이’, ‘학생’, ‘총각’, ‘부인’, ‘환자분’, ‘아드님’, ‘며느님’, ‘신랑’, ‘신부’, ‘아가씨’, ‘손님’, ‘박사’, ‘주인공’, ‘딱내’, ‘여편네’, ‘마누라’, ‘가시나’ 등이 있다. 반면에 태국에는 일반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친족호칭어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한국에

서 일반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만 그렇게 부른다. 한국에서는 대화 상대자의 주의를 화자 쪽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호칭 표현이 있다.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호칭어는 ‘여보세요, 여보게, 여보시오, 여보십시오, 여릅시오, 이봐요, 이봐라, 이봐, 이보게, 이보시오, 여기요, 저기요, 엽소, 이애, 애, 야’ 등이 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คุณ[khun kaː]’, ‘พี่[phi: kaː]’, ‘น้อง[nɔːn kaː]’로 부른다. 이에 따라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호칭어를 가르칠 때 양국의 호칭어 차이점까지 설명해야 한다, 호칭어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자기 나라의 문화에 따라 잘못된 호칭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머니의 친구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이모’라고 부른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아주머니’나 ‘아줌마’로 부른다. 이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한국어 호칭어를 태국인에게 가르칠 때 양국의 호칭어를 비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어 학습 영역이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로 구성되는데 태국의 한국어 학습에서 호칭어 교육이 쓰기 활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호칭어 교육은 말하기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 사람과의 의사소통 능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호칭어 교육은 말하기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2 절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1. 등급별 호칭어 교육 항목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어 호칭어를 등급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 나타난 등급별 호칭어 유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 호칭어의 경우 초급에서 ‘이름+씨’와 ‘성+이름+씨’가 나타났고, 중급에서는 ‘이름+씨’, ‘이름’, ‘이름+호격조사(아/야)’, ‘성+이름+씨’가 나타났다. 고급에는 특별한 이름 호칭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친족 호칭어는 분석한 세 개 대학교 교재 모두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가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중급 교재에 친족 호칭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 여보, 오빠’ 등이 제시되어 있다. 고급 교재에는 실제 사용에서 조금 더 주의를 요하는 ‘아가씨’와 ‘아줌마’의 형태가 나타났다. 셋째, 직함 호칭어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직함+님’(선생님), ‘성+직함+님(김 선생님)’이 모두 사용되었다. 넷째, 대명사 호칭어로는 ‘너, 애들아, 너희들, 사모님, 당신, 여러분’을 볼 수 있고 다섯째, 기타 호칭어는 ‘여보세요?’, ‘저기요’, ‘여기요’의 세 형태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어 교재 분석 내용은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를 등급별로 선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등급별 호칭어 교육 항목 선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현재 통일된 것이 없고 대체로 교육 기관별로 학습자 상황과 여러 변인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정한다. 그런데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급별 교육 목표 설정의 기초 지침이 되고 있다. 그리고 태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태국 사회에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늘고 그 수요가 늘면서 고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학습 목표를 한국어 호칭어 등급별 목록 작성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민(2008:94)에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안내문 및 교재에 나타난 등급별 교육 목표와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표 4-12]와 같은 등급별 호칭어·지칭어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4-12] 한국어 능력시험의 호칭어 등급별 목표 (이민 : 2008)

초급	친척, 직업, 이름형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 호칭어·지칭어를 잘 습득한다. 대명사의 사용은 존대
----	---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
중급	상화에 따라 호칭어·지칭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한다. 격식성 여부, 친소관계에 따른 선택 변인을 습득한다. 대명사의 존대표현과 반말 표현에 대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고급	공식적·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편지, 기사를 쓸 때 호칭어와 지칭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호칭어와 지칭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민(2008)의 연구는 호칭어 외에 지칭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연구의 등급별 호칭어 선정 기준을 참조할 만하다.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학교 사회이기에 초급 단계의 호칭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중심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가족 관계를 넘어서 친족 호칭어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사회 관계 중심의 직장 내, 여행 중,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 필요한 호칭어 교육이 중점을 이루도록 한다. 태국 대학의 고급 학습자는 졸업을 하게 되면 대체로 한국계 회사나 여행상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급에서는 회사나 사회 관계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등급별 교육 항목을 선정한다.

[표 4-13] 태국인 학습자의 등급별 사용하는 한국어 호칭어 어휘

등급	호칭어의 유형	호칭어 어휘
초급	이름	이름+ 씨 성+이름+씨
	친족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언니, 누나, 오빠, 형,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직함	직함+님(선생님, 교수님, 선배님) 성+직함+님 (김 선생님, 최 선생님)
	대명사	너, 너희(들), 여러분
	기타	여보세요.
중급	이름	이름+호격조사 (아/야)
	친족	삼촌, 외삼촌, 숙모, 이모, 고모, 형님, 누님, 여보
	직함	직함+님 (사장님)
	대명사	자기, 당신, 자네, 손님, 고객님
	감탄사	저기요, 여기요
고급	이름	성, 이름, +군/양,
	친족	아가씨, 아범, 어멈, 매형, 형부, 처제, 숙부(님), 서방(님), 매부, 매제
	직함	성+이름+직함+님(이현경 차장님, 강성민 회장님), 성+직함(박 부장, 정 대리) 성+직함+님(박 대리님, 이 부장님), 성+이름+직함(김철수 이사, 이다해 비서)
	대명사	그대, 사모님, 선생님, 선배님, 어르신, 아가씨
	감탄사	이봐요, 저, 야

2.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호칭어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이다. 호칭어는 같은 대화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다르다면 그 사용양상도 다르다. 실제 대화에서는 호칭어가 고정되지 않고 담화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복잡한 상황과 인간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물론 초급 단계에서는 간략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강의를 통해 해당 호칭어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 방식은 학습자가 호칭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등급별 한국어 호칭어뿐만 아니라 다른 호칭어들은 구체적인 대화 상황, 청자의 나이, 성별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호칭어를 여러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른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위[표 4-13]의 내용 가운데 초급 단계는 친족 호칭어를, 중급 단계에서는 대명사 호칭어를, 그리고 고급 단계에서는 직함 호칭어를 대상으로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태국 대학의 교육 과정에 따라 4학년 교과목은 실습과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직함 호칭어 사용이 필요하고, 졸업 후 한국계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여야 하기에 직함 호칭어는 고급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항목이다.

1) 초급 단계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약칭 목표	한국어 친족 호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표현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언니, 누나, 오빠, 형,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수업 대상자	초급 태국인 학습자
수업 시간	100분

(1) 도입

한국에서 가족과 친족의 관계는 중요하다. 각종 대소사와 모임으로 가족과 친족이 자주 만나게 되고 가족과 친족이 모이면 적당한 호칭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호칭어를 알아야 한다. 먼저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 호칭어를 학습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 언니,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친족 호칭어를 공부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자기 가족의 사진을 준비해와야 한다. 학습자에게 직계 가족 중심의 3대의 가계도 그림을 칠판에 보여준다. 교사는 자신의 가족사진을 바탕으로 가계도의 어휘를 보여준다.

(2) 제시

만화 ‘신짱구’²⁰⁾ 장면을 보여 주고 여기에 사용된 호칭어를 제시한다. 이외에 가족에 관한 어휘,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20) 그림은 아래에서 인용한다.

<http://blog.naver.com/skfl10300?Redirect=Log&logNo=60142135548&jumpingVid=2BB0DDEAD0A46E5170777ED4F09050334E16>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ghdrud2&prgid=35777404&catid=32017959&pag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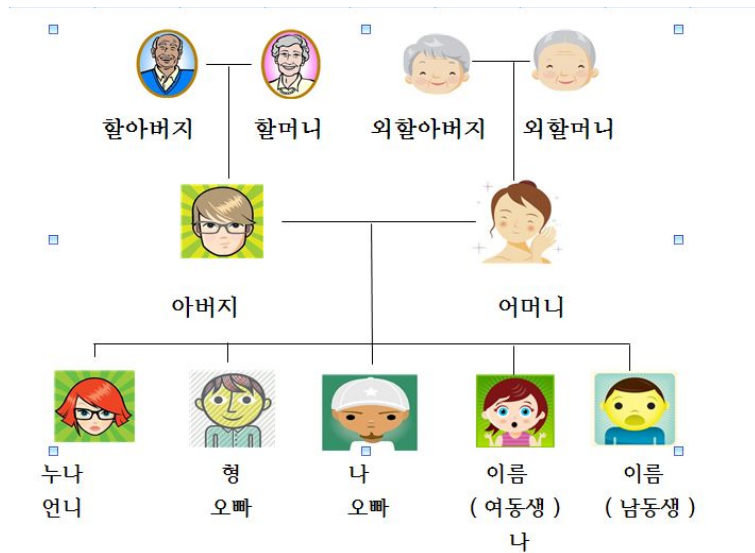
대화

- 짱구 : 엄마, 저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 짱구 어머니 : 그래, 알았어.
- 짱구 : 아빠, 오늘 할아버지하고 백화점에 갈 거예요.
- 짱구 아버지 : 백화점에서 뭘 사려고 해?
- 짱구 : 운동화를 살 거예요.
- 짱구 아버지 : 아버지, 오늘 짱구하고 백화점에 가실 거예요?
- 짱구 할아버지 : 응. 어떻게 알았어?
- 짱구 아버지 : 짱구가 이야기했어요.

(3) 설명

친족 관계의 어휘나 표현은 한국어로 제시한다. 가정생활에서 사용하는 부계 친족 호칭어, 모계 친족 호칭어를 그림²¹⁾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21) http://cafe.naver.com/nete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2380



학습자는 조금 후반 학습자로 반말과 높임말을 이미 학습한 상태이기에 대화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태국의 호칭어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려 주거나,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활용하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가족 관계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표준화법에 따른 형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한다. 친족 호칭어의 언어문화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도록 한다.

(4) 연습

먼저 호칭어 형태를 익힐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어휘 게임을 한다. 소그룹으로 학습자를 구성하고 아래 표를 나눠준 다음 가족에 대한 어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도록 한다. 우수한 결과를 보인 팀에게 작은 선물과 같은 보상을 해 준다면 좀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버지’와 같이 가족 호칭어를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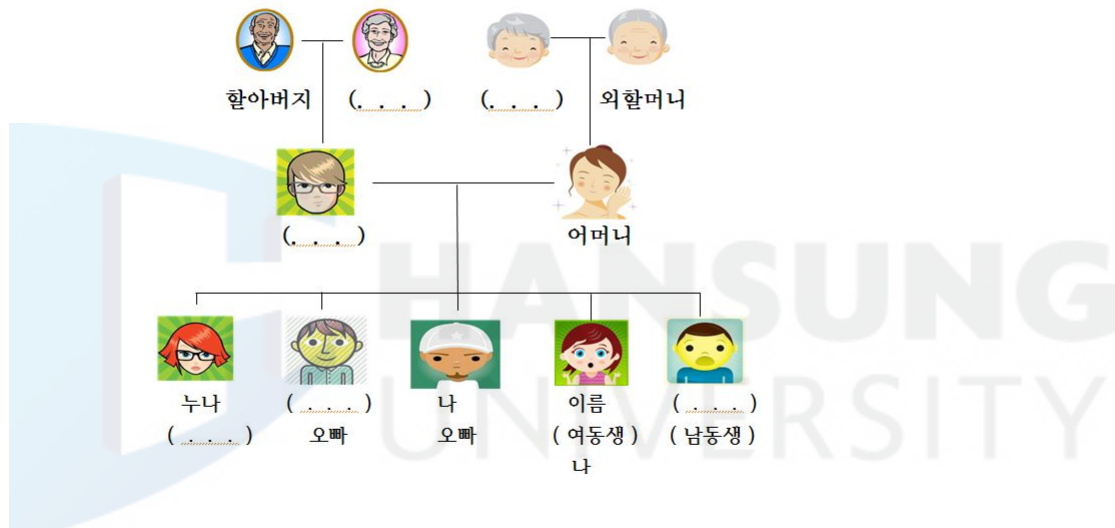
할	아	저	나	내	우	동	편
---	---	---	---	---	---	---	---

머	버	씨	아	할	언	생	부
니	지	지	어	머	니	나	모
아	아	주	머	니	야	누	님
오	빠	들	자	딸	아	님	나

위의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족 어휘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주머니, 아빠, 오빠, 아들, 누나, 언니, 동생, 형’ 등이 있다.

두 번째 어휘 연습으로 앞서 학습한 그림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 그림을 보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5) 말하기 활동

말하기 활동을 두 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는 학습자가 준비한 자기 가족의 사진을 이용하여 가족을 소개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한 내용을 자기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제적 말하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시된 그림 자료를 보고 알맞은 호칭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어 친족 호칭어를 정확히 사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학습자를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림을 보고 역할을 나누어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도록 한다.



소그룹별로 대화 연습을 한 후에 발표를 하게 하고 학습자간 피드백을 교환하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가 호칭어를 정확하게 잘 사용하였는지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 주도록 한다.

발표가 끝난 후 위 그림과 관련된 다음 대화문을 들려주고 내용 이해를 점검한 후 대화문을 확인하여 호칭어에 대한 강화를 하도록 한다.

선물을 준비할까?

동진 : 우아, 좋아요. 아빠.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이따가 누나한테 물어볼게요.

동진 : 누나, 월요일이 엄마 생신인데,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민주 : 글썄, 잘 모르겠어. 너,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동진 : 글썄,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해.

동진 : 아빠, 엄마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빠 : 보통 쇼핑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엄마에게 상품권을 선물할까?

동건	: 그런데, 엄마는 주말마다 쇼핑하잖아요.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민주	: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빠, 이번에는 우리 같이 바다에 놀이 가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빠	: 좋은 생각이다. 그럼 이것은 비밀이야!

(6) 마무리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설명한다. 학습자가 한국어 친족 호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의 대화를 숙제로 시킨다.

2) 중급 단계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학습 목표	한국어 2인칭 대명사와 일반명사 호칭어를 성숙하게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표현	자기, 당신, 자네, 여러분, 손님, 고객님
수업 대상자	중급 태국인 학습자
수업 차시	100분

(1) 도입

학습자에게 드라마를 보여주고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물어본다. 부부의 대화와 친구 간의 대화를 보여준다. 2인칭 대명사 가운데 이 상황에 쓰인 어휘를 질문하고 제시한다.

(2) 제시

드라마에서 부부가 말다툼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가 가22)



남편 : 여보, 왜 그래? 왜 안 자고 있어?

아내 : 자고 싶지 않아.

남편 : 미안해, 자기야. 진짜 일이 많아서 일찍 올 수가 없었어.

아내 : 그런데 왜 전화 안 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음식을 많이 준비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 알아?

남편 : 야, 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내 :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돼?

남편 : 그럼, 어떻게 해? 안 자?

아내 : 그래, 안 자! 나 밥도 안 먹었어.

(3) 설명

먼저 2인칭 대명사를 먼저 설명하고 일반 대명사의 순서로 설명한다.
대화에서 나타나는 2인칭 대명사는 ‘당신’과 ‘자기’는 일반사람들 사이에
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2)

http://www.leesangku.com/pruboard/technote/read.cgi?board=FORGUESTROOM&y_number

‘너’, ‘자네’는 일반적으로 화자보다 나이가 적은 청자에게 사용한다. ‘너’는 친한 관계에 많이 사용하지만 ‘자네’는 직장에서 남성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까지 설명하도록 한다.

(4) 연습

학습자가 대명사와 일반명사 호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²³⁾을 활용한 어휘 연습을 하도록 한다.

<보기>와 같이 대명사 호칭어를 잘 고르고 답하세요.

보기


→


부모님
너
딸 아들


↔


친구
(너)
친구


↔


남편
(여보, 당신, 너, 자기, 아내)


→


선생님
(자네)
학생


→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

23) http://cafe.naver.com/nete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2380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 역할에 맞게 대화쌍 구문으로 대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다음 말하기 의사소통 활동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선생님 :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요?

학생 : 저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 | | |
|--------------|------------|
| 1. 친구 / 친구 | 2. 아내 / 남편 |
| 3. 교수님 / 남학생 | 4. 언니 / 동생 |
| 5. 엄마 / 딸 | 6. 아빠 / 아들 |

(5) 활동

먼저 아래 대본의 드라마 영상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학습자에게 보여 준다.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대화하는 장소를 물어 학습자가 말하기 상황을 인지하도록 한다. 다시 한 번 소리 없이 동영상을 보게 하면서 어떤 대화 상황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3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등장인물 배역을 맡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소리 없이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역할에 맞는 발화 내용을 구상하게 한다. 이후 그룹별로 대화를 만들도록 한다. 각 팀별로 발표를 하게 하고 학습자간 피드백과 교사의 피드백을 하여 더 좋은 대화 내용을 재구성하게 한다.

그리고 소리와 함께 드라마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다. 내용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그룹에서 만든 대화와 실제 드라마 대화의 같고 다른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

고 아래 대본을 보면서 재시청을 통해 내용과 호칭어 사용 실례를 강화하도록 한다.

남편 : 당신 , 이번 주말에 등산할까 ?

아내 : 자기, 등산하고 싶어? 근데, 나 운동화가 없어.

남편 : 그럼 운동화 사러 가자.

아내 : 어디로 갈까? 백화점에 갈까?

남편 : 응, 빨리 가자.

구두가게에서

직원 : 어서 오세요. 고객님의 뭘 드릴까요?

아내 : 저기요, 운동화가 있어요?

직원 : 네, 있어요. 고객님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아내 : 240이에요.

직원 : 고객님의, 신어보세요.

아내 : 자기야, 언제? 예뻐?

남편 : 응, 예뻐.

아내 : 그럼, 자기 사 줘.

남편 : 알았어. 나 등산하고 싶으니까.

(6) 마무리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학습자가 잘 못 이해한 부분을 다시 설명한다. 학습자가 한국어 대명사 호칭어를 잘 사용할 수 하도록 상황을 설정하고 등장인물을 제시한 후 대화문 쓰기 과제를 내준다.

3) 고급 단계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

목표	있도록 한다.
학습 표현	성+이름+직함+님(이현경 차장님, 강성민 회장님), 성+직함(박 부장, 정 대리) 성+직함+님(박 대리님, 이 부장님), 성+이름+직함(김철수 이사, 이다해 비서)
수업 대상자	고급 태국인 학습자
수업 차시	100분

(1) 도입

직장 관련 그림²⁴⁾을 학생에게 보여주고 무슨 직장인지, 회사원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추측해 보게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용하는 직함 호칭어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발표하게 하며 이때 교사는 어휘 지도를 잘 그리면서 직함 호칭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24) www.mysoju.com/korean-drama



(2) 제시

직함 호칭어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여 학습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학습자가 실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음은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지시문을 보면서 시청하게 한다. 직함 호칭어를 찾게 하고 대화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배경

사장님 : 이다해 비서, 이 보고서는 누구 것입니까?

이다해 비서 : 이 부장님의 보고서입니다.

사장님 : 그럼, 이 부장님을 불러 주세요.

이다해 비서 : 네, 알겠습니다.



25)

<잠시 후>

이 부장님 :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 이 보고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부장님 : 저하고 박 부장이 같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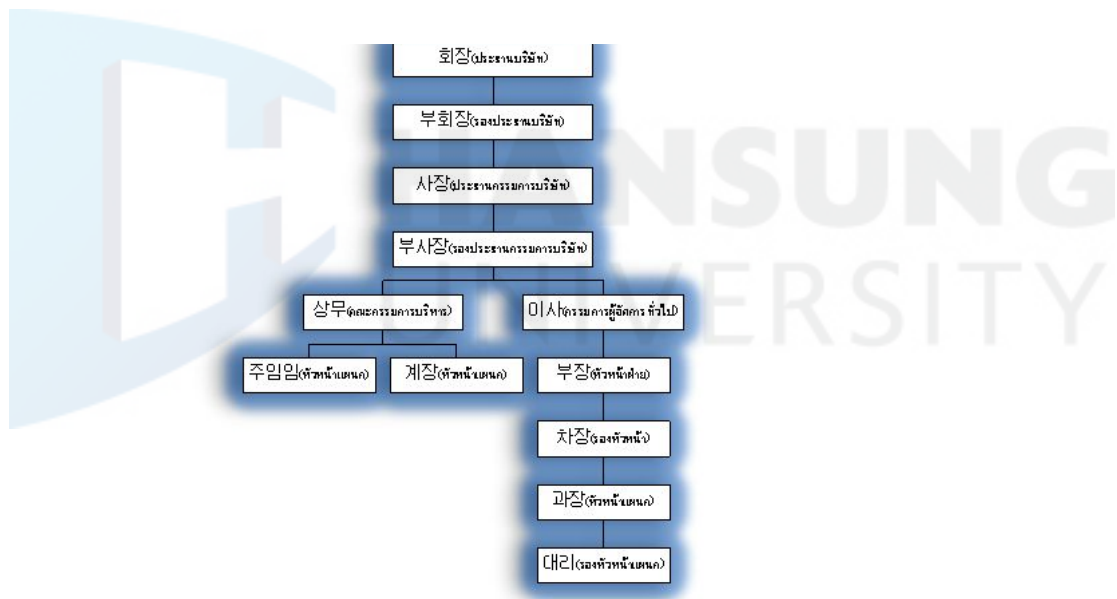
사장님 : 내 생각에는 더 고쳐야 되니까 김철수 이사한테 부탁하세요. 상담 보고서이니까 김철수 이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 부장님 : 네, 알겠습니다.

(3) 설명

회사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정리하고 존대법까지 제시한다. 초급, 중급 단계에서 공부한 직함 호칭어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고급 단계 학습 항목인 ‘1.성+이름+직함+님(이현경 차장님, 강성민 회장님) 2.성+직함(박 부장, 정 대리) 3.성+직함+님(박 대리님, 이 부장님), 4.성+이름+직함(김철수 이사, 이다해 비서) 5.직함 (과장, 대리)’에 설명을 한다.

태국 회사와는 다른 직제를 가진 한국 회사의 직함 호칭어를 설명할 때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태국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위치 차트

25)

<http://office.microsoft.com/ko-kr/images/results.aspx?ex=2&qu=%EC%A7%81%EC%9B%90>

(4) 연습

직함 호칭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어휘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보기>

사장 : (김 부장) 이 보고서를 읽어 봤어요?

김 부장 : 아니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사장님).

1. 박 비서 : (), 커피를 드세요.

김 과장 : 고마워요, ().

2. 이성혜 직원 : () 이 보고서를 이 처장님께 보내
야 하겠어요.

박가을 직원 : 이 보고서를 팩스(fax)로 보냈어요.

3. 이 부장 : (), 회의를 합시다.

김 과장 : 네, () 다 같이 왔습니다.

4. 김 부장 : (), 이 거는 새 사규입니다.

박 회장 : (), 잘 만들었어요?

5. 강 대리 : (), 식사 하셨어요?

박 선배 : 응, 먹었어. () 아직 안 먹었어?

(5) 활동

한국어 직함 호칭어를 태국어와 대비하여 익힌 후에 실제 말하기 활동을 통해 상황에 맞는 호칭어를 잘 선택하여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한국 드라마 <신입사원>의 일부를 보고 소그룹별 토의를 통해 등장인물의 직위와 직함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다시 보고 맞는 답을 확인한다.

드라마 <신입사원> 자료26)



다음은 <신입사원> 드라마의 등장인물에 맞춰 소그룹별 역할을 나누고 대화 상황을 상정한 후 역할극을 준비한다. 그룹별 발표를 통해 상황에 맞는 호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상호 점검하도록 한다.

(6) 마무리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학습자가 한국어 직함 호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업무 상황을 제시하여 이에 알맞은 대화문 쓰기를 하게 한다.

26) www.mysoju.com/korean-drama

제 5 장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태국인 학습자가 어려움을 보이는 항목 중 하나인 호칭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 비교, 대조를 통해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호칭어는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그 쓰임이 활발하며,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로 교육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호칭어는 문화적 배경이나 지역, 개인의 차이에 의해 복잡하지만 한국어 호칭어와 태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징, 양국의 호칭어의 의미, 용법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두 언어의 호칭어는 일상생활에서 범용화된 친족 호칭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호칭어나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그리고 기타 호칭어에서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칭어 사용은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 상황, 격식성의 여부, 화자와 청자의 친밀도와 서열 관계 및 나이 등의 변인에 의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언어문화적, 사회문화적 차이점은 태국인의 호칭어 습득을 쉽지 않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언어문화적, 사회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 방안을 구성하기 전에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호칭어를 사용 실태와 호칭어를 사용능력을 살펴보았다. 태국의 4개 대학(송클라대학교, 치앙마이 랏차팻대학교, 시나카린위룻대학교, 나레수안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출판 한국어 교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호칭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호칭어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재에 제시되지 않으면 태국에서 학습하는 경우 그 형태를 알 수 없다. 또한 호칭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호칭어 교육은 말하기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울대 교재를 예로 들자면 말하기 연습이나 말

하기 활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4개 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호칭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의 호칭어 사용 오류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은 한국어 호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태국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한국어 호칭어의 사용을 추측한 경우도 발견하였다. 이것은 특히 초급 학습자에서 많이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것도 교수 항목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호칭어의 등급별 교육 항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어 호칭어 등급별 교육 항목 선정 기준은 기존 교재 분석 결과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급별 교육 내용에 따라 정리하였다. 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칭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호칭어는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말하기로 교육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등급별 한국어 호칭어 목록 가운데 초급 단계는 친족 호칭어, 중급 단계는 대명사 호칭어와 일반명사 호칭어, 고급 단계는 직함 호칭어에 대한 말하기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당장에 태국에서 한국어 호칭어 말하기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구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태국의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주영(2009), 「방송언어의 호칭어 사용 양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국립국어연구원(1991), 『우리말의 예절』,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2), 『표준 화법 해설』,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10),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김선호(2008), 「태국인을 위한 과제중심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 석사논문
- 김혜숙(1991),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태학사.
- 박갑수(1989), 「국어 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 19호, 국어연구소.
- 박상천(2004), 「한국어 칭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박영순(1980), 「국어와 영어에 있어서의 언어예절 에 대한 비교 연구-호칭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제공하는 논문.
- 박정운(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 (507-527)-
- (2005), 「한국어호칭어의 체계」, 도서출판 역락.
- 백봉자(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법사전」, 도서출판 하우.
- 분마(1998),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 말하기와 듣기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 논문.
- 쁘라주업 인센(2005),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우 표현에 관한 대조적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논문.
- 왕한석 외(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도서출판 역락.
- 유송영(1998), 「국어 호칭·지칭어와 청자 대우 어미의 독립성」, 『국어학'32집』, 국어학회.
- 이무영(1994), 「예절 바른 우리말 호칭」, 여강 출판사.
- 이민(2008), 「한국어 호칭어·지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인 학습

- 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2002),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경(2005), 「한국어 교육에서 청자대우법 연구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윤진(2006),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7권 1호, 한국어교육 학회.
- 임홍빈(1983), 「어휘적 대우와 대우법 체계의 문제」, 국어학논문집 : 705-741
- 제효봉(2010),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집
- 지려나 (2009), 「한중 현대사회 호칭어의 대비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 최현배(1961), 「문교부 제정의 한글을 로마자삼기 Romanization)와 로마자의 한글삼기 Koreanization)에 대한비평」, '국어학' 국어 학회.
- 케와린(2005), 「태국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운정(2002), 「'아줌마, '아가씨, '언니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한국문화사
- 황보나영(1993), 「현대 한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서울지역 대학생 사회의 용접을 심으로-」, 「국어연구」 제112호, 국어연구회.

2. 국외문헌

- Aroonmanakun, Wirote(1999), "Extending Focusing for Zero Pronoun Resolution", Thai, PhD.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Braun, Friederike(1988), "Term of Address : Problem of Patterns and Usage, Various Languages and Cultures", NewYork : MoutondeGruyter.

- Brown, Roger and A. Gilman(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 Style in Language. T.A. Sebok, ed. Massachusetts: M.I.T.Press.
- _____ and Ford, Marguerite(1961), "Address in American English",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Dell Hymes, ed. NewYork : HarperandRow.
- _____ & Gilman Albert (1972), "The pronoun of power and solidarity", Fishman(ed.) Rearing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 Cho J.-H.(1982), "A Study of Korean Pragmatics :Deixis and Politeness. Doctoral dissertation," , University of Hawaii.
- Chomsky(1956), "Reflections on language", London Temple Smith.
- Ervin-Trip(1969), "On Sociolinguistic Roles : Alternation and Co-occurrence" in J.J. Gumperz & Hymes ced,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New York: Holt.
- Fasold(1990), "Sociolinguistics in Society ", Oxford, Basil Blackweell.
- Filbeck David(1973), "Pronouns in Northern Thai Anthropological Linguistics", Bloomington
- Hudson, R.(1996), "Sociolinguistic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J.-R.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Kalaya Tingsabadh & Amara Prasitrathsint(1986), "The Use of Address Terms in Thai during the Ratanakosin period ",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 Lohtrakullwat Chutharat(1998), A comparative study of Addressing terms in France and Thai, M.A.Thesis in linguistics, Chulalongorn

University: Thailand.

Manomaivibool, Prapin(1975), A Study of Sino-Thai LexicCorrespond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Oytade,Solomon Oluwole(1995),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Address Forms in Yoruba" Language in society 24 : 515- 535

Pae, Y. S.(1974), "Semantics of 'You' in Korean.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1-52 558-566

Palakornkul A.(1975), A Sociolinguistics study of pronominal usage in spoken Bangkok ai ,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Park J.-W.(1992), "A Recent Development of Caki,a Second-Person Pronoun in Korean" Location Power : Proceedings of Second Berkeley Women and Language conference 2 :489-500.

Simpson R. C.(1996), The many I's of Thai: Gender Differences in self-reference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New Ways of Analyzing Variation conference, October.

Wardhaugh, R.(1986),"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Blackwell.

เชิดชัย อุดมพนธ์(2010), "การเปรียบเทียบคำเรียกญาติที่ใช้เป็นคำเรียกขานบุคคลที่ไม่ใช่ญาติของไทยและเกาหลี"

ณรงค์กรณ์ รอดทรัพย์(2007), "คำเรียกขานของพระสงฆ์ไทย" ปริญญาโท ศศ.ม. (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บณทิติวิทยาลัย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รีนครินทรวิโรฒ

วิไลวรรณ เชวลิต(1992), "การศึกษาคำเรียกขานในภาษาถิ่นใต้ : กรณีศึกษาบุคลากรในโรงเรียนท่าศาลาประสิทธิ์ศึกษา จังหวัดนครศรีธรรมราช" วิทยานิพนธ์ อ.ม. (ภาษาไทย) นครปฐม : บณทิติวิทยาลัย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ลปากร

อมรา ประสิทธิ์รัฐสินธุ์(1983), ศึกษาเรื่อง "ลักษณะสำคัญบางประการในวัฒนธรรมไทยที่แสดง คำ เรียกญาติ"

한국어 교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0), 「한국어 초급 I」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1), 「한국어 초급 II」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2), 「한국어 중급 I」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2), 「한국어 중급 II」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3), 「한국어 고급 I」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3), 「한국어 고급 II」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1A」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1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2A」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2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3A」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3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6),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4A」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6),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4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7),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5A」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7), 「서강 한국어 STUDENT'S BOOK 5B」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3), 「한국어 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3), 「한국어 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3), 「한국어 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5), 「한국어 4」

【부 록】

호칭어에 대한 설문지

다음 중에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세요.

1.남 () 여()

2 지금 몇 학년입니까?

①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기타()

3.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진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기)이나 취업

② 한국인과 의사소통

③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④ 개인 흥미나 취미

⑤기타()

다음 중 이야기 할 때 알맞은 것을 '✓'를 하세요.

4. 철수야, ① 안녕하십니까?② 안녕하세요? ③ 안녕!

5. 김하늘 씨, ① 안녕하십니까?② 안녕하세요? ③ 안녕!

6. 사장님, ① 안녕하십니까?② 안녕하세요? ③ 안녕!

7.학교에서 '김은선'을 어떻게 부릅니까?

① 김은선 ② 은선 씨 ③ 은선아! ④ 김은선님

8.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① 김철수 ② 김 씨 ③ 김님 ④ 김철수님

9.친하지 않고 그냥 아는 '박가은'이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부릅니까?

① 박가은님 ② 박가은 씨 ③ 박 씨 ④ 가은아!

10.외국인이 한국이름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김장미'란 한국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① 김 씨 ② 장미 씨 ③ 미스 김 ④ 김장미 씨

11.남편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① 아줌마 ② 아가씨 ③ 여동생 ④저기요

12.부부가 서로 부를 때 어떤 호칭어를 안 씁니까?

- ① 여보 ② 당신 ③ 자기야 ④ 임마

13. 수현은 딸 성희와 함께 대학교 동창 지영 집에 놀러 갔다. 지영 집에서 지영의 아들 하림을 처음 만났다. 하림은 어머니의 친한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줌마 ③ 이모 ④ 수현 씨

14.가족에서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부를 때 어떤 호칭어를 안 씁니까?

- ① 며느리 ② 아가 ③ 애미 ④ 아가씨

15.회사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부하 ‘박희수’직원에게 어떻게 부릅니까?

- ① 박 씨 ② 희수 씨 ③ 박희수님 ④ 희수님

16.회사에서 상사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 ① 부장님, 아내께서 괜찮으세요? ③ 부장님, 사모님께서 괜찮으세요?
② 부장님, 부인께서 괜찮으세요? ④ 부장님, 만우라께서 괜찮으세요?

17.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 ① 저기요,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② 당신,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③ 아줌마,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④ 아저씨,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18.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지나가는 30대 초반 여자에게 사라고 권하는데 어떤 호칭어를 부르지 않습니까?

- ① 아줌마, 들어오세요.
② 손님, 들어오세요.
③ 언니, 들어오세요.
④ 아가씨, 들어오세요.

19.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집주인이나 직원을 어떻게 부릅니까?

- ① 아줌마, 비빔밥 하나 주세요.
② 이모, 비빔밥 하나 주세요.
③ 아가씨, 비빔밥하나 주세요.

④ 저기요, 비빔밥 하나 주세요.

20. 한국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 친구의 아버지께 어떻게 인사합니까?

① 아버지 안녕하세요?

② 아버님, 안녕하세요?

③ 아저씨, 안녕하세요?

④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ABSTRACT

A Study of Address Terms in Korean for Thais –A Comparison Address Terms in Thai and Address Terms in Korean and Teaching Integration in Conversational Contexts–

Pawana Petpra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ddress terms in Korean are different and based on situations and persons so a cultural difference is a factor that limits foreigners especially Thais studying Korean to use address terms while having conversation with the Koreans.

It is necessary to be a study of address terms and teaching methods for address terms in Korean for Thais in order that the Thais studying Korean can use correct and appropriate Korean address terms and can have effective conversation in Korean.

This thesis is to study the address terms by comparing the address terms in Thai and the address terms in Korean in the conversational contexts. Collecting data is by analyzing the address terms in Thai and the address terms in Korean shown in Korean textbooks used in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Srinakarinwirot University, Naresuan University

and ChiangMai Rajabhat University and by interviewing Thai students studying Korean.

According to the study, it is found that the address terms in Thai and the address terms in Korean are different and partially similar. Thais do not address others with name and family name while Koreans address others with both name and family name or address only family name. The formal address terms in Korean and the address terms in everyday communication are also different.

However, the similarity between Thai and Korean is kinship terms which reflect relations with families in both Thai and Korean are similar.

Refer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Korean textbooks in the above universities in Thailand, it is found that there are a few Korean address terms in the textbooks and there are no instructions how to use the Korean address terms. Only definitions of the address terms are stated and it is caused Thai students some mistakes in Korean conversations.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ing Thai students studying Korean, it is found that the cultural difference is a factor of using incorrect Korean address terms. That is Thai students correlate Thai address terms and Korean address terms so there are some mistakes in the conversations.

Furthermore, there is lack of an integration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learning and teaching Korean syllabuses for the students in each year in the universities in Thailand. The first year and the second year students are emphasized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so they can practice more Korean everyday communication than the third year and the fourth year students who are emphasized reading and writing skills. It leads them to lack

effectiveness of using the Korean address terms comparing with the first year and the second year students.

For these reasons, the researcher apply the results to study the learning and the teaching of Korean address terms for Thai students in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focusing on the speaking skill. To develop the learning and the teaching Korean in Thailand to be mo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llabuses in both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to be appropriate for Thais. This study critically emphasizes the conversation. The data of this thesis can be further a basic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extbooks for Thais.

Keywords : Korean address, Thai address, kinship terms, Korean textbooks, conversations



การศึกษาคำเรียกขาน :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ลักษณะคำเรียกขานของภาษาไทย กั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นบริบทการสนทนา

ภาวนา เพ็ชรพราย
วิชาเอก 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วรรณคดี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ธนทอง 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การใช้คำเรียกขานใ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นั้นแตกต่างกันออกไปขึ้นอยู่กับสถานการณ์และตัวบุคคล

ดังนั้น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ด้านวัฒนธรรมจึงเป็นปัจจัยหนึ่งที่ทำ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โดยเฉพาะคนไทยที่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มีข้อจำกัดในการใช้คำเรียกขานเมื่อสนทนา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

ดังนั้นเพื่อให้คนไทยที่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สามารถใช้คำเรียกขานได้ถูกต้องและเหมาะสมนั้น
จึงจำเป็นต้องมีการศึกษาการใช้คำเรียกขานและวิธีการสอนการใช้คำเรียกข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สำ
หรับคนไทยโดยเฉพาะ เพื่อให้การสนทนาเป็นไป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

ในวิทยานิพนธ์ฉบับนี้ได้ศึกษาคำเรียกขานโดยเปรียบเทียบลักษณะคำเรียกขานของภาษา
ไทยกั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นบริบทการสนทนาโดยเก็บข้อมูลจาก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ของคำ
เรียกขานในภาษาไทยและ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คำเรียกขานที่ปรากฏในหนังสือ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ที่
ใช้สอน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สงขลานครินทร์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รีนครินทรวิโรฒ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นครสวรรค์
และ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ชภัฏเชียงใหม่ และวิเคราะห์ข้อมูลจากการสัมภาษณ์นักศึกษาไทยที่เรียนภาษา
เกาหลี

จากการศึกษาพบว่าคำเรียกขานในภาษาไทยและภาษาเกาหลี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กันและมีบาง
ส่วนที่คล้ายคลึงกัน กล่าวคือ การเรียกชื่อ คนไทยไม่นิยมเรียกชื่อด้วยชื่อจริงและนามสกุล
ส่วนคนเกาหลีนิยมเรียกชื่อทั้งเรียกชื่อและนามสกุล หรือเรียกนามสกุลเพียงอย่างเดียว และคำ
เรียกขานใ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ที่เป็นทางการกับคำเรียกขานที่ใช้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ก็แตกต่างกัน

ในส่วนที่คล้ายคลึงกัน คือ คำเรียกเครือญาติซึ่ง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ว่าความสัมพันธ์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ของไทยและเกาหลีมีความคล้ายคลึงกัน

ผลจาก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แบบ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ของไทยดังที่กล่าวในข้างต้นพบว่า
ปรากฏคำเรียกข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ซึ่งมีจำนวนไม่มาก และไม่มีคำอธิบายถึงวิธีการใช้ เพียงแต่
ให้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คำไว้เท่านั้น จึงส่งผลให้นักศึกษาไทยเกิดข้อผิดพลาดเมื่อสนทนาภาษาเกา
หลီได้

ในส่วนผล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แบบสอบถามนักศึกษาไทยที่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พบว่า 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
ด้านวัฒนธรรมเป็นปัจจัยที่ทำให้ใช้คำเรียกขานผิดพลาด กล่าวคือนักศึกษาไทยได้เทียบคำ
เรียกขานในภาษาไทยกั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จึงทำให้เกิดข้อผิดพลาดเมื่อใช้สนทนา

นอกจากนี้หลักสูตร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ของไทยนั้นสำหรับนักศึกษาในแต่ละชั้นปีขาด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ด้านทักษะการฟัง พูด อ่าน และเขียน กล่าวคือ นักศึกษาชั้นปีที่ 1 และสอง เน้นการฟัง การพูด สามารถฝึกการสนทนา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ได้มากกว่านักศึกษาชั้นปีที่ 3 และ 4 ที่เน้นทักษะด้านการอ่านและการเขียน จึงทำให้ใช้คำเรียกขานได้ขาดประสิทธิภาพกว่านักศึกษาปี 1 และ 2

ดังนั้นผู้วิจัยจึงได้นำผล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นี้ไปสู่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คำเรียกข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ห้แก่นักศึกษาไทยในระดับต้น กลาง และสูง โดยเน้นทักษะทางด้านการพูดเป็นสำคัญ ทั้งนี้เพื่อพัฒนา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ห้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มากขึ้น จึงจำเป็นต้องพัฒนาทั้งหลักสูตรการศึกษา เนื้อหาและวิธีการสอ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ห้เหมาะสมกับคนไทย ซึ่งวิทยานิพนธ์ฉบับนี้ได้เน้นในประเด็นของการสนทนาเป็นสำคัญ ข้อมูล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ในวิทยานิพนธ์ฉบับนี้อาจเป็นพื้นฐานในการพัฒนาแบบ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สำหรับคนไทยได้ต่อไป

คำสำคัญ : คำเรียกข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คำเรียกขานภาษาไทย, สนทนา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หลักสูตร, แบบ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